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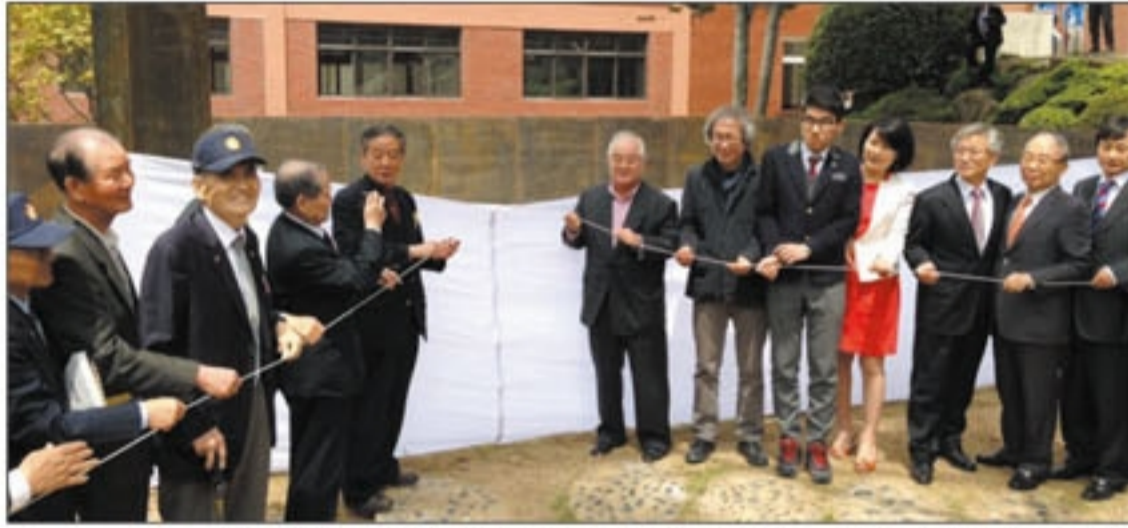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고 닳아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교



편집 / 제작 : 경남중동문회보 편집실
발행처 : 경남중등학교 본부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참전 및 전몰동문 기리는 '성찰의 집' 준공식

개교기념일에 맞춰...참전동문 등 1백여명 참석



참가자들이 '성찰의 집' 가림막을 걷어내고 있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

6.25전쟁 참전 및 전몰동문들을 기리는 기념공간인 '성찰의 집' 준공식이 지난 4월 30일 모교에서 열렸다.

개교 71주년 기념일에 맞춰 열린 이날 준공식은 참전동문 30여명과 동창회 임직원, 모교교직원, 재학생 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먼저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에 이어 설계자인 승효상 동문(25

회)의 작품설명, 참전동문 대표의 인사말 등이 있은 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참가자들이 흰 천으로 된 가림막을 걷어내는 제막식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제막식이 끝난 뒤 '성찰의 집' 한 가운데에 놓인 바위를 중심으로 모여 기념촬영을 하며 답소하는 등 시종 경건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3면에 화보와 스케치>

6.25때 전사한 동문 32명 신원확인

참전동문 배중현 동문(7회)이 각종 자료 뒤져 확인

6.25전쟁 당시 참전했다가 전사한 우리 동문이 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참전동문이며 '서울헌7회 학병동지회' 회장인 배중현 동문(7회)이 조사해서 집계한 전몰동문명단에 따르면 전몰동문은 △3회 7명 △4회 2명 △5회 11명 △6회 9명 △7회 1명 △8회 2명 등 모두 32명이다.

배 동문은 △1957년도 중앙학도호국단이 발행한 '전몰학도 명단' △1957년도 총동창회 명부 △김화지구 현우위령비에 새겨진 전사자명단 △전몰동문의

가족과 동기들의 제보와 증언 △육군본부 자료 및 육군종합학교전우회, 육군갑종장교전우회 자료 △국립현충원 기록 등 각종 자료들을 일일이 대조하고 조사한 끝에 이들 전몰동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배 동문은 참전동문들의 인적사항도 조사, 취합 중에 있는데 4월 30일 현재 파악된 참전동문은 1회부터 7회까지 1백57명으로 집계됐다.

<3면에 전몰동문 및 참전동문 명단>

문화재전문위원들, '원형교사 실사' 벌여

6월 5일 문화재위원회에서 등록여부 결정

문화재청 전문위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4일 오전 모교를 방문, 원형교사(덕형관)가 근대건축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벌였다.

실사단은 이날 두 시간 가까이 원형교사 외부와 내부, 옥상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모교 교장실에서 건축 당시의 평면도 등 서류들을 조사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오는 6월 5일 개최되는 회의에서 실사단의 원형교사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보고서가 통과되면 한 달 간의 예고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문화재청 전문위원 등이 원형교사 옥상에서 설계도면을 보며 실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실사에 참여한 사람은 △이정수 문화재 전문위원(충남대 교수) △김기수 문화재 전문위원(동아대 교수) △황보영희 문화재청 상근전문위원 △김정신 문화재위원(단국대 교수)이다.

황태호 동문(36회), 획기적 암 치료법 개발

우두바이러스 변형시켜 '암 킬러 바이러스' 개발 20년 연구 끝에 개가...KBS 1TV, 특집방송

획기적인 암 치료법이 우리 동문에 의해 개발돼 전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황태호 동문(36회, 부산대학교수). 그는 부산대 치과대를 졸업한 뒤 개업을 하는 대신 부산대 의과대에서 20년간의 연구 끝에 우두바이러스를 이용해 암세포만 찾아가서 공격하는 'JX-594'라는 '암 킬러 바이러스'를 개발해냈다.

우두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조작해 만든 이 '암 킬러 바이러스'는 혈관에 주사하면 암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 암세포를 죽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가면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항암바이러스는 암 종양에 직접 주입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JX-594는 그런 한계가 없어 깊숙한 부위의 종양이나 전신에 퍼진 암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암 치료법인 것이다.

'JX-594'의 뛰어난 효능은 임상시험 결과로 입증됐다.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에서 기존 표준치료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했던 말기 간암환자 등 30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2상에서 전체 환자의 50%의 종양성장이 억제됐다. 또 기존 항암제와 비교해서 생존기간이 2배 이상 연장됐으며,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 'JX-594'는 현재 미국 FDA 감독 하에 전 세계 45개 대학병원에서 임상 2B 더블블라인드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고 곧 이어 임상 3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 동문은 동창회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FDA 승인절차를 거쳐 'JX-594'는 3-5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과학잡지인 '네이처'는 황 동문의 항암바이러스개발을 커비스토리로 다뤘고 '뉴욕타임스'도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바이러스'라고 크게 보도했다.

KBS1 스페셜도 지난 3월 10일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암의 종말-암의 천적 킬러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황 동문의 연구업적을 특집으로 방영했다.

<5면에 황태호 동문 인터뷰 기사>

이번 호부터 승효상 동문의 '한국건축 산책' 연재

- * 6.25전쟁 전몰 및 참전동문 명단 - 3면
- * '암 킬러 바이러스' 개발한 황태호 동문 인터뷰 - 5면
- * 김경희 동문의 용마열전 ③ / '요절한 기자' 故 장정호 동문 - 10면
- * 초대석 / 이상택 동문(13회, 안양 샘병원 이사장) - 13면
- * 승효상 동문의 한국건축 산책 ① 종묘 - 15면
- * 남기고 싶은 이야기 / 한 아름다운 여인의 추억(마지막 회) - 17면
- * 김재환 동문의 영터리농사꾼의 전원일기 ③ - 21면

경남고 야구부, 권역대회에서 6전 6승으로 우승

황금사자기, 대통령배 전국대회 출전권 확보
경남중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

모교 야구부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야구협회가 주최하는 2013년 고교야구 주말리그 경상A권역 대회에서 6전 6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0일 열린 폐막식에서 서강태 교장이 공로상을, 이종운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고 정우석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 김유영 선수가 최우수 투수상, 정다솔 선수가 타격상을 각각 받았다.

이번 우승으로 모교 야구부는 2013년 황금사자기 전국고교 야구대회와 대통령배



6전 6승으로 전승우승한 모교 야구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야구대회 출전권을 함께 확보했다. 한편 경남중야구부도 오는 5월 25일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부산 대표로 나가게 된다.

허범도 회장, 경남고와 경남중에서 특강

허범도 본부동창회장(22회)은 지난 4월 15일 오후 모교 국산관에서 2학년 재학생 2백70여명을 대상으로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경남고는 허 회장의 제안에 따라 앞으로 매달 선배 동문들이 재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허 회장은 이날 경남중도 방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특강을 했다. 경남중도 앞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선배 동문의 특강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고, 경남중 같은 날에 입학식 가져

경남고 2013년도 입학식(제 70회)이 지난 3월 4일 오전 교내 체육관에서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동창회 관계자등 1천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신입생은 총 2백68명으로 9개 학급에 배치됐다.

경남중도 이날 입학식(제 73회)을 갖고 2

백39명(7학급)의 신입생을 받아들였다.

본부덕형포럼, 5월 15일 이수동 동문(19회) 초청특강

본부덕형포럼 제18차 모임이 오는 5월 15일 오전 7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초청강사는 이수동 동문(19회, WCC총장협의회 회장, 전 울산과학대 총장)으로 '미래세상 엿보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13일 같은 시간과 장소에 열린 제17차 모임에서는 고려대 안암병원 심혈관 센터장인 김영훈 동문(30회)이 초청 강사로 참석, 특강을 했다.

류명석 동문(31회), 경남고운영위원장 유임

류명석 동문(31회)이 지난 3월 28일 모교 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재선, 유임됐다.



류명석 동문.

모교 70년사 편찬위원회에 위촉장 전달

허범도 본부동창회장(22회)은 지난 4월 9일 본부동창회 사무실에서 모교70년사 편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편찬자문위원들과 편집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편찬위원장으로 추대된 김경희 재경고문(9회)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우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 동문이 참여하는 70년사 편찬 사업을 전개하자"고 강조하였다.

70년사 편찬위원회는 앞으로 소수 전문가들로 편집기획안부터 만든 뒤 그에 따라 자료수집과 필자들을 정하는 등의 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김경희(9) △정량부(17) △김형운(18) △남진현(19) △김원주(22) △박창호(24) △이요섭(27) △이우환(28) △김재철(30) △마창수(30) △정해석(30) △최동식(31) △박종우(32) △황유명(29, 본부동창회 사무총장)



모교 70년사 편찬위원회가 본부동창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제15회 용마골프대회, 5월 26일 가야C.C에서 개최

선착 순 2백명 접수 받아...5월 10일 마감

본부동창회 주최 제15회 용마골프대회가 오는 5월 26일(일요일) 오후 2시 가야C.C에서 열린다.

본부동창회는 이번 대회에 각 기별, 지역 제한 없이 선착 순으로 2백명(50개조)을 접

수받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청마감은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본부동창회사무국에 전화(051-245-7551) 또는 팩스(051-245-7550)로 하면 된다.

이날 운영위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부위원장에는 이영욱 전교 학부모회장이 선출됐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교감, 교직원 대표 2명, 학부모 대표 5명, 지역위원 대표 3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 마련된 자리였다.

박종환 동문, 본부동창회에 책·결상 기증

박종환 동문(34회, DC가구백화점 대표)이 본부동창회에 1백50만원 상당의 책·결상을 기증, 동창회 사무실의 업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박 동문은 기장군 정관면에서 가구백화점을 경영하고 있다.

오거돈 고문, 본부동창회 임원 등 초청만찬

오거돈 본부동창회 고문(21회)은 지난 3월 18일 저녁 서면 '월강초밥'에서 본부동창회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회장단 30여명을 초청, 만찬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오 동문이 본부동창회장에서 물러나면서 이임인사 겸 그동안 협조해 준 동창회 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

기사 제보, 기고 받습니다

동창회보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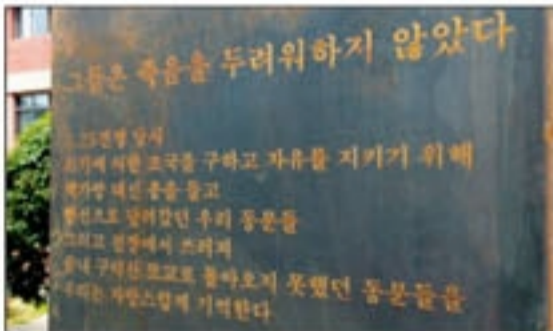
yongmanews@gmail.com

동창회장기 제15회 용마골프대회



- 일 시 : 2013년 5월 26일(일) 오후 2시 동시출발(샷건 방식)
※ 오후 1시까지 등록(접수)완료
- 장 소 : 김해 가야C.C (Tel.055-337-0091)
- 참가인원 : 200명(50개조) 선착순
- 참가신청 : 1) 각 동기회 회장 및 국장
2) 각 동기회 골프회 회장 및 국장
3) 본부동창회 사무국
Tel. 051-245-7551, Fax. 051-245-7550
- 대회구분 : 1) 기별대항 단체전 (스트로크 방식)
2) 단체조 개인전 (Gross 계산)
3) 개인전 A·B조 (뉴페리어 방식)
4) 용마가족 여성부 개인전 (동문 부인)
- 시 상 식 : 오후 7시 30분 김해 가야C.C 그릴
- ※ 벤츠 출인원상, 이글특별시상 등 각종 시상품과 행운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 많은 참가를 위해 특별히 일요일에 개최합니다!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달려갔던 우리 동문들 우리는 그대들을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



주요 참석자들이 '성찰의 집' 제막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위 사진). '성찰의 집' 벽체에 새겨진 참전 및 전몰동문을 기리는 글(아래 왼쪽). 가림막을 걷어내자 모습을 드러낸 '성찰의 집'(아래 오른쪽). (사진=윤원욱 편집위원)

■ 제막식장 스케치

참전동문들, 승효상 동문에게 “수고 많았다” 악수 청하기도 임우근 동문, “잘 나가는 일부 동문들 의외로 비협조적” 재학생들의 ‘선구자’ 합창에 참전동문들 흐뭇한 표정

○...제막식 1시간 전부터 연로한 참전동문들이 한 두 명씩 모이기 시작. 이들 참전동문들은 '성찰의 집'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일부 참전용사들은 군복무 중에 받은 표장을 가슴에 달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이 날 참전동문들은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후배들이 나서서 해냈다”며 이구동성으로 이 일을 주도한 후배들에게 감사를 표시. 일부 참전동문들은 임우근 동문(19회)과 승효상 동문(25회)에게 일부러 다가가 “정말 수고 많았다”며 악수를 청하기도. 이에 승 동문은 “오 히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어서 고마울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하는 모습.

○... '성찰의 집' 건립을 주도해온 임우근 동문은 “지난 2011년 2월 9일 재경동창회 정기 총회 겸 신년하례회에서 이태석 동문 동상건립과 참전 및 전몰동문들을 기리는 기념물조성을 함께 제안했었는데 결국 2년 만에 두 가지 약속을 다 지켜냈다”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피력.

그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일부 동문들이 의외로 비협조적이었던 반면 평소 앞에 잘 나서지 않는 동문들로부터는 많은 격려와 협조를 받았다”고 실토.

○...제막식 식순에 따라 재학생 10여명이 등장해 우리 가곡 ‘선구자’를 합창.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연로한 참전동문들은 ‘선구자’ 합창을 들으며 흐뭇한 표정을. 한 참석자는 “오늘 제막식에 어울리는 노래”라며 “곡 선정을 잘했다”고 말하기도.

○...참전동문대표로 소개된 배중현 동문(7회, 서울 현7회화병동지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들이 진작에 했어야 했던 일을 동문후배들이 대신 해주어서 고맙고 부끄럽다”며 감사를 표시.

◇ ‘성찰의 집’ 건립성금 내주신 동문 (본부동창회 접수 분/기수 순)

- △이길상(6회) 20만원 △오강욱(10회) 10만원 △최웅남(16회) 20만원 △김길제(18회) 2백만원 △구영남(20회) 30만원 △유재진(22회) 2백만원 △박수갑(23회) 20만원 △박철병(23회) 30만원 △이부식(23회) 30만원 △정상건(23회) 30만원 △곽두희(24회) 30만원 △최동하(25회) 30만원 △박상호(26회) 1백만원 △이규생(26회) 20만원 △양승오(29회) 20만원 △김현태(30회) 30만원 △윤인태(30회) 30만원 △이철호(30회) 10만원 △이병태(31회) 30만원 △정용수(32회) 20만원 △김범영(33회) 50만원 △김종만(33회) 10만원 △류장근(33회) 30만원 △박명진(33회) 2백만원 △허부남(37회) 50만원 △박인석(39회) 10만원 △김병성(41회) 30만원 △김형률(41회) 50만원 △이경호(41회) 20만원 △19회 동기회 50만원 △경남고운영위원회 50만원

<합계 1천4백50만원> (2013년 4월 30일 현재)

‘성찰의 집’ 건립성금 접수처 부산은행 028-01-032907-5 경남중고동창회

◇ 6.25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전몰한 동문들

3회(7명)

- 김석영(金碩英) - 종합23기, 군번212014, 대위(수도사단), 1953년 7월 14일 전사
- 박우근(朴茂根) - 종합8기, 군번207479, 소위, 1951년 2월 9일 강원지역에서 전사
- 박석수(朴石守) - 전사일시 장소미상, 1957년도 총동창회 명부에서 확인
- 송진성(宋珍星) - 종합8기, 군번207464, 소위, 1951년 2월 12일 전사
- 조명석(趙明錫) - 전사일시 장소미상, 1957년도 총동창회 명부에서 확인
- 조신제 - 전사일시 장소미상, 1957년도 총동창회 명부에서 확인
- 최준한(崔俊翰) - 전사일시 장소미상, 1957년도 총동창회 명부에서 확인

4회(2명)

- 이형복(李炯福) - 헌병7기, 군번036 4502, 하사, 1950년 10월 21일 김화에서 전사
- 전은달(全恩達) - 헌병7기, 군번036 4475, 하사, 1950년 10월 21일 김화에서 전사

5회(11명)

- 공외탁(孔外鐸) - 기갑 112 3018, 일병, 영변지역에서 전사(전몰학도명단에서 확인)
- 김종수(金鍾洙) - 헌병7기, 군번710 1246, 하사, 1950년 10월 21일 김화에서 전사
- 김창호 - 종합8기, 군번207415, 중위, 8사단 1951년 2월 11일 화성지역에서 전사
- 신윤상(申潤相) - 헌병7기, 군번036 4845, 2중, 1952년 1월 3일 화성에서 전사
- 서영대(徐英大) - 소위(III), 1951년 2월 17일 경북 의성에서 전사
- 양용수 - 해군2함대, 병조장, 군번810 1987, 동해 해상에서 전사(전몰학도명단에서 확인)
- 이정희(李廷熙) - 헌병7기, 군번036 4756, 하사, 1950년 10월 21일 김화에서 전사
- 이성준(李成俊) - 헌병7기, 군번710 1026, 하사, 1950년 10월 21일 김화에서 전사
- 이철우(李鐵雨) - 헌병7기, 군번710 1386, 하사, 1951년 2월 13일 황성에서 전사
- 정석희(鄭碩熙) - 보병, 육사생도, 1950년 6월 29일 용인에서 전사
- 최원식(崔元植) - 헌병7기, 군번036 4787, 중위(1사단 포병대), 1951년 4월경 임진강전투에서 전사

6회(9명)

- 김궁우 - 2중, 중부전선에서 전사
- 김홍엽 - 헌병7기, 하사, 황성에서 전사
- 박동식(朴東植) - 헌병7기, 하사, 1950년 10월 21일 김화에서 전사
- 박성록 - 중위, 군번209067, 2사단 소대장, 1951년 3월 5일 경북 봉화에서 전사
- 손만수(孫萬錫) - 헌병7기, 군번036 4160, 하사, 1950년 10월 21일 김화에서 전사
- 신동민(辛東敏) - 헌병8기, 2중, 1953년 8월 5일 하동에서 전사(전몰학도명단에서 확인)
- 오홍식(吳興植) - 헌병7기, 군번036 4805, 하사, 1950년 10월 21일 김화에서 전사
- 이조영(李曹永) - 3군단헌병대, 2중, 하동에서 전사(전몰학도명단에서 확인)
- 임평준(林平準) - 전사일시 장소 미상, 1957년도 총동창회 명부에서 확인

7회(1명)

- 이보상(李保祥) - 헌병7기, 군번710 1156, 하사, 1950년 10월 21일 김화에서 전사

8회(2명)

- 이종근(李種根) - 1103부대, 소위, 1951년 1월 19일 마령에서 전사(전몰학도명단에서 확인)
- 이재권(李在權) - 헌병8기, 군번112 3018, 1중, 1953년 1월 20일 경북에서 전사(전몰학도명단에서 확인)

* 각기별 가나다 순
총 32명

* 이 전몰동문 명단은 1957년도 중앙학도호국단 발행 '전몰학도 명단', 1957년도 총동창회 명부, 김화지구 현우위령비에 새겨진 전사자명단, 그 외 전몰동문의 가족 및 동기 등의 제보와 증언, 육군본부 자료 및 육군종합학교전우회, 육군갑종장교전우회 자료, 국립현충원 기록 등을 통해 파악된 것임.

◇ 6.25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한 동문들

<1회>

- 김상태 정동식 최병주

<2회>

- 손호현

<3회>

- 곽원배 김용해 김 환 박영희 배 석 백영하 신정택 연명수 오준석 이미용 정태수 천봉래 최주식 한동원 허종만 황응윤

<4회>

- 강태현 곽인배 김경식 김교화 김두희 김병욱 김상언 김상희 김영문 김재중 김종한 김주호 박근철 박복근 박수덕 박재중 송구범 신상대 오석해 이진우 장태영 정동호 정치근 조동묵 최갑종 최두경 최정택 최해주 표학준 김낙건 문창택 정기영 정봉호 홍자선

<5회>

- 갈봉근 강성구 강신배 고광준 고창순 김근도 김근석 김사모이 김상은 김석근 김수현 김영무 김영복 김영한 김윤규 김은규 김용영 김익근 김익종 김정규 김정태 김진휴 김찬수 김태식 김태삼 김형도 문윤정 박재오 박종구 백승주 서재홍 서준근 성천영 손진희 송인성 송진한 송재홍 이수일 어우홍 왕 성 유월영 윤명호

- 윤성호 이경옥 이광수 이동성 이상우 이선우 이영국 이일봉 이상욱 임채현 장길수 장석원 장정원 장지대 전상무 정가모 정진우 조돈준 최경철 최영철 최종규
- <6회>
김진국 구기회 구하서 김두영 김상엽 김영근 김용택 김용운 김용영 김종복 김준상 문교순 문화운 박역식 박영근 박영대 박우재 박종근 박종기 박철식 배문수 배종권 송호익 유해두 이기수 이길상 이덕만 이현덕 장기선 정소영 정천수 조윤승 최병수 최병택 최인갑 허 태
- <7회>
김우근 배중현 변철규 이원기 조성율

158명(전몰동문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임)

* 이 참전동문 및 전몰동문 명단은 '서울현7회 화병동지회' 회장 배중현 동문(7회)이 조사, 취합(2013년 4월 30일 현재)한 것임. 이 명단에서 누락된 참전 및 전몰동문에 대한 제보는 배중현 동문(전화 017-249-9664/02-477-2296)에게 해주시기 바람.

2013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총 2,311명 (2013년 4월 23일 기준)
* () 는 2014년도분 선납부자

- 1회(1명) 허종수
- 2회(1명) 박기화
- 3회(13명) 김희철 류영렬 문병집 박영희 박준양 손주석 송두호 신정택 윤태운 이 경 이안규 하덕모 황성남
- 4회(21명) 김기홍 김상희 김윤용 김용해 김종호 김주호 문택상 박무열 박석만 신상대 양종욱 윤옥경 이남규 임영수 장수호 정상현 정순모 정치근 조성일 조홍제 황갑생
- 5회(21명) 김균석 김석호 김인택 김진휴 김형태 박봉식 박장후 박종구 배종태 송두성 우명수 유병환 이경호 임성일 정만오 정인조 정희준 주법국 진도영 최영철 황홍성
- 6회(30명) 김상업 김윤용 김태곤 김태환 노재형 박기복 배종권 조순성 손용수 염희성 유상환 이강운 이갑상 이현우 임경택 장재수 정건우 정경규 정덕환 정상철 정승화 조관승 조재형 조정규 현산우 최병수 최석원 최인갑 최한병 허택
- 7회(41명) 강병희 강창구 구택용 김갑성 김명관 김명환 김상현 김영민 김용우 김중순 김중경 김진홍 김태배 남홍우 류상남 박세담 박영섭 박영식 박한배 배근식 배병우 배종현 서우찬 소진은 송외덕 양종만 오동환 오장은 윤진희 이동우 김광옥 이상주 이진호 이창현 임성규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함홍주 허종오 홍성안
- 8회(32명) 강성태 구본섭 김봉길 김재범 김태규 도은영 문 국 문동현 문창희 박동열 박우상 박재범 배기현 배주원 서진근 손세일 안종열 이상목 이상희 이은조 이종택 이준기 이현문 이호수 이희순 이희복 전영배 조성래 조윤제 지창수 최경태 홍기성
- 9회(24명) 김경희 김기하 김동용 김성우 김성택 김명문 김희환 김정규 김 청 박담희 박영복 박화철 성백규 신석현 신윤익 안규현 안병환 지삼봉 한동태 원종희 유금열 유병철 윤성태 이대규 이영구 이주환 장동근 장병국 전인규 정 목 정영권 조성진 조이호 차진환 최성욱 최종현 한득수 홍기표
- 10회(34명) 고광수 권용술 김삼국 김삼규 김성규 김연수 김창덕 박재경 배길은 서철하 신규태 신대수 양현두 오광욱 이재창 이근태 이민섭 이봉원 이연희 이윤수 이재순 이상복 장기상 장형구 전영태 정상수 정종만 조길수 조양제 조종재 최성일 하영수 하영백 하영오
- 11회(52명) 김중수 김중하 김창하 김태호 김희수 김향곤 남호현 문정호 박관호 박성우 박수경 박용관 박창순 박태오 박희태 서영호 서자은 서진갑 성기득 손봉길 심재홍 안강태 양호준 염한호 오길훈 오한수 오정광 유홍종 유홍수 이재찬 이병태 이상철 이상태 이상희 이상길 이상우 이상영 이정기 이종문 이종백 이종주 임근호 장대철 장영권 정은표 제정오 조현도 채기권 천근준 천동조 최득호 최성욱 최태원 최희태 4년분 납부, 조동준 3년분 납부
- 12회(76명) 강본순 공 문 객진영 구진용 구창희 권시길 권연상 김기수 김기인 김두수 김봉하 김부환 김상철 김석근 김선일 김수현 김성수 김우성 김종현 김중수 김중일 김창진 김철기 김현주 김준호 남기용 문준화 박문기 박순국 박영운 박용운 박정운 박 창 배기원 배종섭 백승근 백용권 변동만 서병기 손제문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안옥득 엄태섭 오세정 옥재한 윤하근 이규만 이상현 이성대 이수영 이순민 이순태 이영길 이용언 이용희 이원우 이원철 임상원 장동석 정대식 정성수 정성원 정수복 정호중 조한기 조종래 지수남 차진도 천금태 허일민 한행수 허정욱 홍두표 황태영 백승근
- 13회(89명) 강귀동 강영삼 강정문 고승구 구덕건 구문공 권영계 권영재 김동호 김부조 김부조 김상현 김소용 김순연 김신부 김장용 김정근 김장일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김홍석 김홍철 문 창 박건일 박안남 박원길 박종택 박진태 박용일 박홍표 배대결 배정은 서시주 서영용 성정호 송민일 송신의 송창식 신동진 명 신원철 신용태 신하근 심영수 안기연 안준수 양길승 오한수 오한수 유원철 윤기갑 윤영우 윤조용 윤태오 이경재 이명진 이병환 이상문 이상빈 이영복 이웅재 이정명 이종택 이준범 이정일 이희세 이태량 임소철 임영홍 임홍조 정용운 전복룡 정로상 정연호 정영화 정은섭 정종현 제병민 조병성 조용갑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동환 최병영 추지석 한병조 황정대 이경재
- 14회(66명) 강주신 강휘주 김경수 김 공 김도선 김명정 김명식 김의용 김재도 김홍석 김창기 김형수 김화옥 노방현 류종일 문성필 문운용 박건길 박남조 박만인 박병선 박진재 박정홍 백태우 변희경 성이경 송광용 손영목 송석훈 신기석 신윤진 신준호 신현호 오태용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우 이동식 이명재 이수남 이진우 이창희 이현근 이호근 이훈일 장상식 전병선 전병연 조규환 조경현 진상태 최근자 최낙선 최병태 최봉현 최종락 허문수 하진봉 한민식 한수길 허민영 허 중 황수길 황원재
- 15회(66명) 강무상 강무송 강민조 강부남 강부부 강창일 고대인 권대식 권승부 권경일 김갑영 김노명 김삼근 김소현 김규규 김정환 김종환 김홍식 김황영 남임순 박복만 박영길 박종석 박철양 박효기 배 박 배성훈 서정욱 손부용 송길용 신용기 유효기 유우경 윤휴정기 건 이동근 이승우 이승수 이재원 이정부 이종수 이 준 장종호 장철길 정갑수 정동표 정옥종 정준수 정행남 조규준 조영일 조일량 최광웅 최병우 최원수 최은호 최의수 최창석 하정부 한진철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홍익찬 황중부 황은식

- 16회(82명) 강동근 강상권 강영주 강인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복순 권의강 김광수 김갑정 김덕찬 김두용 김명식 김박일 김연호 김영우 김인국 김정우 김 조 김종석 김철근 김태일 노상현 문성환 문형식 박광작 박무열 박수명 박정욱 박종봉 박준호 박 흥 방수근 배정희 배창 서정호 성기식 송승광 송규정 송자문 안국정 양성민 여성규 예광호 오광치 오형철 옥무용 옥시영 옥윤석 유정호 유호주 이경일 이경환 이계용 이규방 이길홍 이무근 이무영 이순남 이양근 이영재 이종수 이종철 이재인 이철수 이현규 이효일 임승언 장사충 정영일 정우광 정원철 정일성 조홍제 차상영 채경일 최윤철 최정일 하홍근 한일량 황규호
- 17회(70명) 김정은 강정자 권경순 권화영 김갑우 김길호 김태희 김동운 김만홍 김무현 김부근 김영환 김용구 김조일 김준희 김중성 김지창 김현은 김홍철 김홍규 김홍기 남궁성은 박가서 박건양 박신도 박영일 박영희 박인사 박종구 박 찬 박태길 박옥식 서정승 설순옥 손성근 송상훈 송수용 송우근 송민문 신 종 신희규 심민섭 양원모 우기남 윤성욱 윤수성 이성을 이세복 이수창 이재형 이정보 임우택 임정수 장승구 장호남 전경명 정두호 정량부 정병일 정태일 정형근 제양성 조종연 지인식 천용광 최성호 추봉식 하영수 허진행 황성진
- 18회(79명) 김연수 강대원 강덕용 강만수 강성태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고창현 구영근 김경길 김경권 김경희 김광용 김기섭 김동희 김두현 김두환 김만수 김사근 김성준 김영국 김용기 김재환 김중상 김중철 김준길 김형운 류동우 문희희 박건태 박노수 박복봉 박동오 박상욱 박석도 박영복 박영일 박 용 박용희 박정욱 박종만 박준석 박호성 백승래 서재봉 손천규 송수일 양세수 양윤욱 오재동 우원호 우영석 윤봉수 이근희 이대은 이상영 이재일 이종순 이태우 임재영 장수일 전기준 전병희 전상근 전영석 정우용 정 흥 조성재 지문서 차명석 천두갑 최재범 최진수 최희영 한광수 허만조 홍우재 박호성
- 19회(79명) 강영범 고광호 고문찬 공기주 김경우 김경태 김대인 김덕규 김명수 김문기 김배오 김봉호 김석규 김석용 김성욱 김성철 김순호 김영복 김영택 김익건 김정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철호 남진현 박갑진 박상식 박성철 배우삼 서세복 선우일남 성낙출 손말현 손철수 신윤철 심재구 안정모 양승수 육인영 우정복 유문환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 구자섭 김건일 김경섭 김대영 김두표 김상수 김상영 김상현 김석현 김성주 김영목 김영배 김영화 김윤관 김익근 김재봉 김정복 김정환 김종배 김종훈 김주찬 김중광 김태성 김태용 김태정 김태홍 남상철 문규철 문명옥 문창호 박무열 박문도 박수갑 박준현 박철병 배준석 백창영 서상병 송영준 송재재 송재선 신인국 신원종 신태철 안범두 안병관 안병용 양희택 오도준 오만석 옥치범 유봉희 유진우 윤순현 이동성 이문희 이상철 이상수 이상환 이수백 이승구 이정옥 이종현 이종택 장기원 장대익 장동국 장백기 장병규 전명식 전상대 전재홍 정동일 정상건 정호호 정희원 조민재 조장래 조환용 조현표 재형은 최인식 최태인 하승은 한병경 허대용 허연옥
- 24회(97명) 강동우 강영창 강정은 강창덕 강형철 공문수 꼭두희 구본영 구자은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석 김기진 김동은 김동진 김만복 김명배 김성득 김성철 김승택 김영만 김영범 김영철 김은섭 김인규 김태홍 김희성 남창영 노상우 박맹렬 박성표 박영근 박재선 박창종 박창호 박홍규 백석규 백상환 변용준 서순상 서정록 석민식 손종식 신병식 신장우 안명수 안형모 안형수 안순권 안희복 여옥주 여철우 오덕오 윤서만 윤지현 이기원 이대영 이동진 이상학 이석우 이 수 이영태 이재능 이재성 이정희 이정무 이한영 이현국 이호규 임덕철 임민호 임철호 장민재 장세호 장현동 전대현 전용우 정광운 정명근 정무열 조영수 조용근 조용화 조재진 진병건 차문공 최석규 최원주 최중식 최진우 최현규 하성기 하진태 한상철 홍용기 (여원주)
- 25회(70명) 고명식 권수갑 김건우 김구화 김남일 김대현 김동식 김동진 김문국 김봉철 김성겸 김상수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운수 김중은 김중택 김중현 노태오 박경립 박동건 박영우 박세철 박인국 박종찬 박현구 배기동 백승익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창재 손국영 송효상 신경하 안희석 양승욱 윤순기 윤희태 이대우 이명철 이찬형 이창훈 이홍익 임상택 장선근 장세훈 장홍석 전영주 조광재 조 익 주재걸 진익철 천석수 최동하 최영관 최종택 박준길 태영삼 한봉재 한준석 허 택
- 26회(80명) 강도식 강수남 강영남 고석훈 구영호 권해국 김기표 김두현 김만석 김영철 김은철 김재수 김재용 김중우 김중철 김태규 김호용 노영석 박경재 박남식 박능률 박무식 박만식 박상호 박원세 박의영 박재욱 박종국 박종호 박관기 방홍기 서준희 성백은 성재업 성재일 순옥호 신대현 신동현 안길호 양영준 왕정일 왕호석 유근욱 윤경일 윤승훈 윤일중 윤용석 이경호 이규생 이규용 이기주 이동일 이명진 이상현 이승무 이상상 이재복 이정근 이주형 이현식 이희준 정경재 장만옥 정익고 정태현 정현준 조만석 조일제 차인식 최성택 최영수

- 석대식 성낙도 신구근 신윤원 신인기 심풍수 양문섭 오충조 옥유진 유영목 유정동 윤영학 윤인태 윤종순 이광희 이기환 이동근 이명건 이상철 이상수 이영준 이인호 이종욱 이종현 이종훈 이진걸 이철호 이한수 이호준 이환기 인준순 장석일 장호영 장훈상 전경재 전은석 정경목 정광덕 정규홍 정병호 정부광 정성원 정승진 정영호 정용하 정재근 정태환 정태환 정해석 조병훈 조순영 차원주 채영재 최석렬 최우철 최정운 최진근 최진권 하규양 하영동 하재명 한효용 황철민 (김영일)
- 31회(66명) 고영호 공종렬 김 만 김성규 김영철 김영학 김의석 김정덕 김중호 김태근 김현주 김형수 김호성 김요연 남기태 노윤환 류명석 민종현 박경수 박덕종 박용관 박인정 박종호 박준일 박해성 박희담 배정우 서규영 서동근 서태고 서보경 송영태 신상하 신수열 안우현 안중수 안문서 오민일 옥봉근 옥치호 유봉하 윤석준 이배철 이병근 이병태 이상철 이수준 이승현 이원태 이홍규 임종태 정무서 정복재 조봉우 조영기 차인용 천창호 최경우 최상규 최재선 최재식 최진섭 최해영 허명수 허병관 한문성 허일현
- 32회(32명) 김광기 김경길 김동성 김동식 김동환 마승철 민길식 박상학 박진원 신국선 신철호 안병철 안정모 안문석 양성기 오경명 윤종열 이병훈 이상을 이승근 이태운 이환용 임재근 정용은 정의주 조준현 최승찬 최영훈 최종호 최준호 허수철 허 정
- 33회(40명) 공진환 김계주 김기산 김명환 김법영 김원일 김재선 김종만 김중운 김 철 김태훈 남경태 노경호 노종현 류장근 민병현 박명진 박치호 박태종 배종현 백수현 서재영 송종현 심희찬 안영은 오상기 오창선 옥숙한 이등근 이윤조 이지홍 이해승 장병환 정영호 정인섭 최영두 최희경 최희원 하지수 홍주성
- 34회(30명) 과수군 김동욱 김범서 김삼갑 김상환 김수남 김철영 김중환 김태환 김태하 김희영 노승환 노인선 문창영 박인수 박재욱 박철호 오상민 오승태 오주은 이재안 이정현 이진호 조문국 조시형 진양호 최대수 태일산 황기용 황병우
- 35회(38명) 구자민 김관우 김기철 김동일 김선택 김우경 김우신 김윤석 김홍근 김환성 나동욱 노규정 류인수 모재현 변상돈 서석근 서규원 서창용 손수남 안창돈 오시영 이광민 이상근 이상환 이영오 이재식 이종찬 이종택 이상성 정문종 정성운 정인철 조성규 주귀홍 천현석 최근식 홍규삼 황용순
- 36회(38명) 김원철 권일복 김관용 김덕환 김동기 김영훈 김중오 김중현 김진우 김철원 김현고 김희환 남우진 박경환 박명하 박수홍 박영찬 박용철 박철종 방진영 서광원 신용덕 윤용수 이성호 이수수 이원석 이정영 이종상 임서용 임창섭 장익성 정규영 정창규 제갈재환 조경호 최승호 하재철 홍의창
- 37회(26명) 김태우 권기원 김성현 김영근 김영광 김영태 김원범 김필렬 김홍희 김동호 노태근 문진형 박규배 박선호 박윤식 양기수 이상백 이용환 진인수 조성각 최재형 최환승 하승호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 38회(26명) 권두성 김경태 김기현 김문철 김영길 김재성 김관준 김현민 노공택 류인식 문기상 문익현 박인철 박준표 손태환 안길수 유관재 윤경만 이양배 이종명 이 한국 정인철 정준기 조석태 조용철 차성철
- 39회(21명) 강대경 김도경 김병기 김윤용 김중업 김희영 노진근 박수근 박도영 김동호 배효민 손석호 심왕섭 여동섭 이상태 이승기 이영수 장동수 장윤혜 정진혜 지준환
- 40회(35명) 강순석 권귀동 권병서 김경환 김동하 김성진 김성환 김영진 박근성 박무성 박상범 박양근 박재현 박제성 박준제 배병훈 배영진 배진수 신상룡 예진원 옥진형 우영환 이 기 이영희 이정삼 장갑구 장명재 정찬호 최경진 최태훈 하성호 현정호 황재용 황성수 황창수
- 41회(23명) 김석희 권태용 김덕성 김범성 김봉준 김형률 박보환 박정희 박종택 성종훈 안광근 윤종진 이경호 이수영 이상길 이영철 이종민 정용주 조재봉 한정호 허종운 허치희 홍석우
- 42회(14명) 권영태 김규식 김병기 김정원 김태규 백영환 서정호 신동복 신봉준 유기만 이정택 정홍준 제정환 한창영
- 43회(16명) 강병규 강진만 김명식 김준근 김진수 김태형 문기덕 박상순 박진형 박영규 박현규 심문섭 이용상 이호영 전세준 정용훈
- 44회(11명) 김동욱 김왕성 박정민 배봉건 이동렬 이창용 임정훈 전광렬 정종운 탁정환 허태욱
- 45회(7명) 김삼수 김현호 나성태 박상화 박 옥 장성익 최재영
- 46회(5명) 김진희 김동희 이주용 정영석 정윤철 (정영세)
- 47회(2명) 고달우 성상용
- 48회(1명) 김정훈
- 49회(4명) 신택영 장민근 조영철 최진영
- 50회(1명) 박원진
- 52회(1명) 김현진
- 53회(1명) 이재홍
- 55회(1명) 김태연
- 65회(1명) 최성원

구독료 관련 문의
 본부동창회 사무실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소설가 허택 동문의 <용마 탐구> - '암 킬러 바이러스' 개발한 황태호 동문(36회)

'집념의 20년 연구'... 획기적인 암 치료법 개발

황태호 동문(36회)은 지난 20년 동안 암 치료약 개발에 매달려 왔다. 그리고 마침내 '암 킬러 바이러스'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암치료법을 개발했다. 그가 개발한 'JX-594'로 명명된 암 킬러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나온 항암치료와는 달리 암 환자의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며 종양부위의 암세포만 골라 침투해 죽인다. 그가 개발한 이런 암 치료법은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점에서 전 세계 의학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치과개업 대신 의대에 남아 암 치료법 개발에 몰두

놀랍게도 황 동문은 치과의사이기도 하다. 경남고 졸업 후 부산대 치과대에 진학했으나 치과대 졸업 후에는 남들처럼 치과의사가 되는 대신 부산대 의과대에서 '돈이 안 되는' 기초의학 연구에 매달렸다. 그는 "기초과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에서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에 남아 학위과정을 밟았다"고 말했다.

- 주변사람들로부터 왜 치과개업을 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다.

"(웃으며) 많이 들었다. 모두들 의아해 하더라. 기초과학을 시작한 뒤 치과를 개원한 친구들을 만나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격차가 느껴져 속상한 적도 있었지만 꿈과 열정이 있었기에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는 "기초의학공부를 하면서 뭔가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보니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심하게 됐다. 자나 깨나 오직 그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 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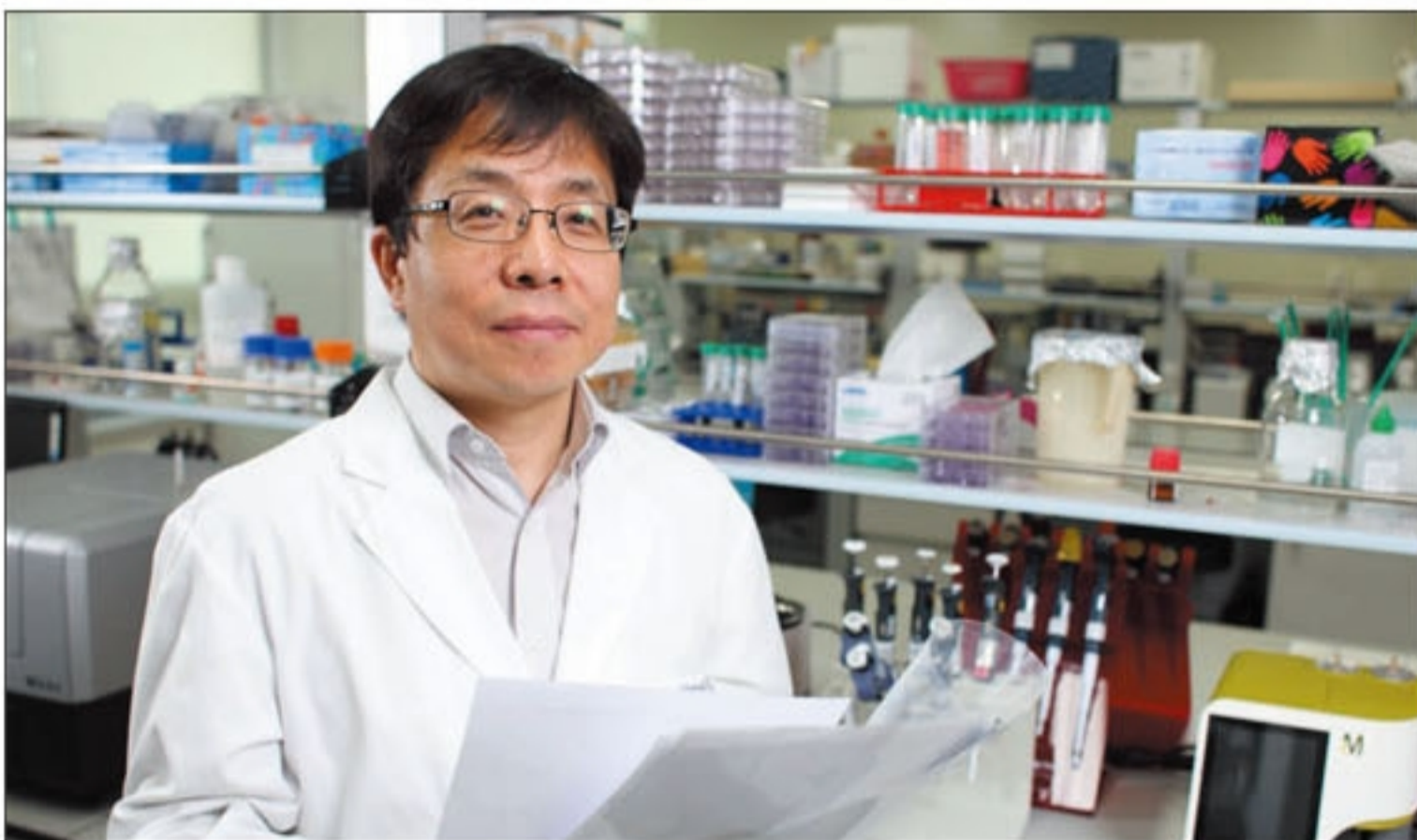
우두바이러스 이용해 '암 킬러 바이러스' 개발성공

그가 암 치료법 개발에 매달린 것은 20년 전부터, 그리고 바이러스를 이용한 암 치료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부터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공동연구팀과 만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내 집 드나들 듯이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한다. "서울에 간 것보다 미국에 더 자주 갔다"고 그는 말한다. 지금도 그는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미국연구팀과 화상전화를 하며 바쁘게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암 킬러 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법을 쉽게 설명하면...

"많은 바이러스들 중에서 특히 우두바이러스가 암세포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우두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조작, 정상세포에서 독성을 일으키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선택해서 침투해 증식하는 'JX-594'라는 '암의 천적'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또 'JX-594'는 건강한 생체조직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를 죽이고 동시에 체내의 면역세포를 감염된 암세포로 유도하는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혈관을 통해 'JX-594'를 주입하면 암 킬러 바이러스와 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협공해 죽이게 되는 것이다."

황 동문이 개발한 '암 킬러 바이러스'는 혈관에 주사하기만 하면 암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 암세포를 죽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가면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연구 중인 다른 항암바이러스는 암 종양에 직접 주입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JX-594는 그런 한계가 없어 깊숙한 부위의 종양이나 전신에 퍼진 암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법인 것이다.



황태호 동문. 양산 부산대병원에 있는 연구실에서.

임상2상에서 탁월한 효능 입증...3~5년 내 상용화

황 동문의 새 치료법은 이미 임상1상과 임상2상을 통해 뛰어난 효능이 확인돼 세계의 의학계를 놀라게 했다. 임상1상은 안전성을 따지는 것이고, 임상2상은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임상2상을 통해 'JX-594'가 특히 말기 간암환자, 대장암, 신장암환자들에게서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됐다.

-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방법인데, 부작용은 없다.

"임상시험 결과 며칠 동안 감기 앓듯 하는 정도일 뿐 별다른 부작용은 없다."

그는 "앞으로 암 종류에 따라 치료효과가 좋은 '맞춤형 암 킬러바이러스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곧 임상3상에 들어가게 되면 빠르면 3년~5년 이내에 상용화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임상3상은 전 세계에서 환자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임상2상에서 확인된 효능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어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용화되면 돈방석에... 앞으로 노벨의학상 수상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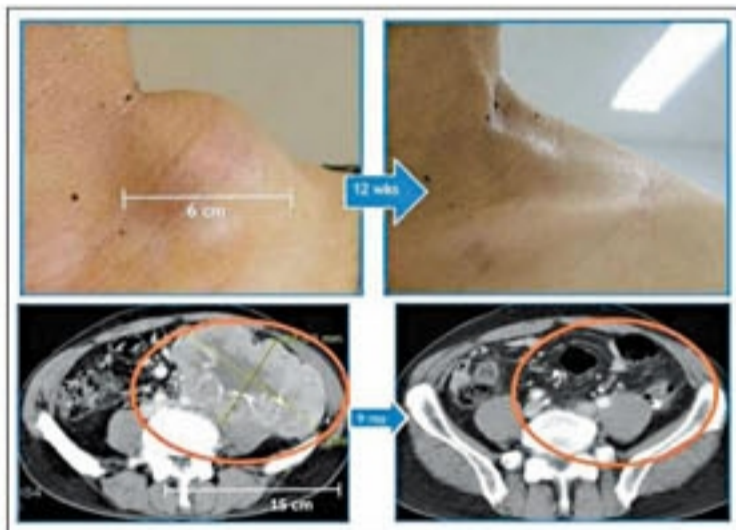
- 상용화되면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되겠다.

"(웃으며) 당장은 아니고... 몇년 뒤에는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신라젠'이라는 바이오벤처회사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데 나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부산대학교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간 연구활동을 하면서 미국의 바이엘제약사 연구소 소장이 직접 부산까지 찾아오는 등 외국에서는 적극 이해하고 지지를 해주었으나 막상 국내의 제약기업들과 정부관계자들은 그의 연구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실토했다.

지난 3월 10일 저녁 KBS 1TV 스페셜이 1시간 동안 황 동문의 연구업적을 자세히 전하자 황 동문에게는 전국의 말기 암환자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임상시험에 참가하게 해달라는 당부인데 임상2상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고 1학년 때 신문반에서 활동했고 재학 중에는 야구를 아주 좋아했다. 그는 "원형교사 옥상에 있었던 신문반 씨름틀에서 신문반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던 일이 기억



간암이 목으로 전이된 말기간암환자에게 JX-594를 주사하자 12주만에 암종양이 거의 사라졌다(사진 위). 아래는 말기 신장암환자에게 JX-594를 주사하기 전(왼쪽 사진)과 주사한지 9개월 뒤 암세포가 거의 사라진 사진(오른쪽).

11 February 2013
Cancer killing virus
 Evidence of a dose dependent therapeutic effect from a virus that infects and kills tumor cells in patients with advanced liver cancer is reported in Nature Medicine.
Latest news
 - Do plants 'vet' bad genes?
 - Explosive power makes silicone robot jump
 - Europe's leaders slash research budget
 More news from NATURE

네이처 온라인판에 커버스토리로 보도된 황 동문의 연구내용. '암을 죽이는 바이러스'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에 남는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는 지금도 36회 동기들의 야구동호회에서 한 달에 한 두번씩 야구를 하고 있고 기별야구대회에는 선수로 나가기도 한다.

35살 때 중매로 만나 결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외롭고 힘든 길을 걸으며 불굴의 의지로 끝내 획기적인 암치료법을 개발한 황 동문이야말로 어느 누구 못지않은 '자랑스러운 용마'일 것이다. 인터뷰를 끝내면서 문득 그가 어쩌면 앞으로 노벨의학상을 받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허택(25회, 치과의사 겸 소설가)>

‘모교사랑’은 ‘행동’... 애교심을 보여줍니다.

- | | | | | | |
|------------|--------|-------------|-------|------------|--------|
| △ 김도태(29회) | 30만원 | △ 인준승(30회) | 20만원 | △ 정철수(31회) | 500만원 |
| △ 김석운(29회) | 30만원 | △ 임영수(30회) | 50만원 | △ 조성근(31회) | 12만원 |
| △ 김영기(29회) | 10만원 | △ 임영호(30회) | 30만원 | △ 조영기(31회) | 24만원 |
| △ 김인술(29회) | 100만원 | △ 장영조(30회) | 30만원 | △ 조현우(31회) | 12만원 |
| △ 김정암(29회) | 100만원 | △ 정영호(30회) | 100만원 | △ 천장호(31회) | 12만원 |
| △ 박동일(29회) | 50만원 | △ 정승진(30회) | 30만원 | △ 최경우(31회) | 32만원 |
| △ 박성길(29회) | 100만원 | △ 정채화(30회) | 60만원 | △ 최봉근(31회) | 12만원 |
| △ 박성철(29회) | 200만원 | △ 천성일(30회) | 10만원 | △ 최상규(31회) | 12만원 |
| △ 배진영(29회) | 100만원 | △ 최상호(30회) | 50만원 | △ 최재호(31회) | 12만원 |
| △ 송희태(29회) | 50만원 | △ 최영규(30회) | 20만원 | △ 최진섭(31회) | 200만원 |
| △ 양승오(29회) | 80만원 | △ 최우철(30회) | 500만원 | △ 최해영(31회) | 12만원 |
| △ 윤형근(29회) | 50만원 | △ 최재봉(30회) | 100만원 | △ 최효식(31회) | 60만원 |
| △ 이경호(29회) | 100만원 | △ 추태영(30회) | 10만원 | △ 허학열(31회) | 120만원 |
| △ 이석조(29회) | 500만원 | △ 하규양(30회) | 100만원 | △ 한광규(31회) | 12만원 |
| △ 이승호(29회) | 100만원 | △ 하전근(30회) | 10만원 | △ 허일현(31회) | 12만원 |
| △ 이종포(29회) | 50만원 | △ 허영재(30회) | 30만원 | △ 홍성수(31회) | 120만원 |
| △ 임광열(29회) | 100만원 | △ 황철민(30회) | 100만원 | △ 김창범(32회) | 20만원 |
| △ 전장화(29회) | 100만원 | △ 30회 울산동기회 | 450만원 | △ 이병준(32회) | 100만원 |
| △ 장 만(29회) | 100만원 | △ 공광욱(31회) | 50만원 | △ 허 규(32회) | 10만원 |
| △ 정 길(29회) | 100만원 | △ 공종렬(31회) | 12만원 | △ 계동원(33회) | 30만원 |
| △ 정성훈(29회) | 100만원 | △ 김경영(31회) | 12만원 | △ 김기산(33회) | 20만원 |
| △ 강석철(30회) | 30만원 | △ 김기정(31회) | 100만원 | △ 김범영(33회) | 3000만원 |
| △ 권영인(30회) | 30만원 | △ 김기 만(31회) | 100만원 | △ 김재선(33회) | 10만원 |
| △ 권용택(30회) | 50만원 | △ 김성수(31회) | 300만원 | △ 김종인(33회) | 12만원 |
| △ 구용석(30회) | 10만원 | △ 김영철(31회) | 12만원 | △ 류장근(33회) | 100만원 |
| △ 김경수(30회) | 30만원 | △ 김재술(31회) | 60만원 | △ 류홍영(33회) | 30만원 |
| △ 김기업(30회) | 50만원 | △ 김정덕(31회) | 12만원 | △ 박명진(33회) | 5500만원 |
| △ 김백수(30회) | 30만원 | △ 김정택(31회) | 12만원 | △ 박성범(33회) | 10만원 |
| △ 김상직(30회) | 10만원 | △ 김중호(31회) | 120만원 | △ 백수현(33회) | 50만원 |
| △ 김성복(30회) | 10만원 | △ 김진국(31회) | 12만원 | △ 서재영(33회) | 100만원 |
| △ 김세일(30회) | 30만원 | △ 김태근(31회) | 100만원 | △ 신용준(33회) | 10만원 |
| △ 김승대(30회) | 10만원 | △ 김판덕(31회) | 12만원 | △ 이 명(33회) | 1000만원 |
| △ 김옥성(30회) | 10만원 | △ 김현수(31회) | 12만원 | △ 최영두(33회) | 12만원 |
| △ 김재수(30회) | 30만원 | △ 김현율(31회) | 12만원 | △ 한상봉(33회) | 100만원 |
| △ 김중진(30회) | 30만원 | △ 남기태(31회) | 200만원 | △ 34회 동기회 | 1000만원 |
| △ 김중희(30회) | 100만원 | △ 남철우(31회) | 60만원 | △ 이재완(34회) | 500만원 |
| △ 김창근(30회) | 30만원 | △ 류명석(31회) | 100만원 | △ 이진호(34회) | 200만원 |
| △ 김현태(30회) | 100만원 | △ 박경수(31회) | 200만원 | △ 김동인(35회) | 10만원 |
| △ 박동욱(30회) | 50만원 | △ 박석기(31회) | 100만원 | △ 김병수(35회) | 10만원 |
| △ 박원호(30회) | 100만원 | △ 박석두(31회) | 100만원 | △ 이남기(35회) | 10만원 |
| △ 박재백(30회) | 30만원 | △ 박인정(31회) | 12만원 | △ 황운순(35회) | 10만원 |
| △ 박정태(30회) | 30만원 | △ 박종규(31회) | 100만원 | △ 김철원(36회) | 100만원 |
| △ 박철우(30회) | 100만원 | △ 박희암(31회) | 12만원 | △ 이동희(36회) | 30만원 |
| △ 서강태(30회) | 10만원 | △ 배정우(31회) | 12만원 | △ 임창섭(36회) | 10만원 |
| △ 서민석(30회) | 60만원 | △ 서동균(31회) | 12만원 | △ 정인석(36회) | 30만원 |
| △ 서복현(30회) | 100만원 | △ 서수교(31회) | 100만원 | △ 김길영(37회) | 20만원 |
| △ 서재원(30회) | 30만원 | △ 서태교(31회) | 100만원 | △ 김원범(37회) | 10만원 |
| △ 서하수(30회) | 200만원 | △ 성용성(31회) | 12만원 | △ 박용진(37회) | 50만원 |
| △ 석대식(30회) | 30만원 | △ 손은정(31회) | 12만원 | △ 조영규(37회) | 20만원 |
| △ 송영환(30회) | 100만원 | △ 손정수(31회) | 24만원 | △ 홍병일(37회) | 10만원 |
| △ 송한식(30회) | 30만원 | △ 손진기(31회) | 12만원 | △ 홍원석(37회) | 10만원 |
| △ 신병주(30회) | 30만원 | △ 신상하(31회) | 12만원 | △ 황태윤(37회) | 10만원 |
| △ 신영주(30회) | 30만원 | △ 신수열(31회) | 12만원 | △ 박준표(38회) | 20만원 |
| △ 신원원(30회) | 30만원 | △ 심규열(31회) | 12만원 | △ 오희진(38회) | 10만원 |
| △ 안종화(30회) | 100만원 | △ 심재홍(31회) | 12만원 | △ 이종명(38회) | 300만원 |
| △ 오경태(30회) | 10만원 | △ 안기수(31회) | 24만원 | △ 김도경(39회) | 20만원 |
| △ 왕순모(30회) | 30만원 | △ 안우현(31회) | 60만원 | △ 김진호(39회) | 20만원 |
| △ 유영록(30회) | 10만원 | △ 오민일(31회) | 300만원 | △ 양정교(39회) | 10만원 |
| △ 유재일(30회) | 10만원 | △ 오용환(31회) | 120만원 | △ 한성호(39회) | 10만원 |
| △ 윤성덕(30회) | 1000만원 | △ 윤정수(31회) | 20만원 | △ 김영진(40회) | 10만원 |
| △ 윤인태(30회) | 50만원 | △ 이병태(31회) | 100만원 | △ 이영철(40회) | 10만원 |
| △ 윤종순(30회) | 30만원 | △ 이석우(31회) | 12만원 | △ 강병오(41회) | 10만원 |
| △ 이광봉(30회) | 30만원 | △ 이승진(31회) | 12만원 | △ 강석희(41회) | 10만원 |
| △ 이광희(30회) | 20만원 | △ 이재웅(31회) | 24만원 | △ 김기영(41회) | 10만원 |
| △ 이기환(30회) | 50만원 | △ 장건호(31회) | 12만원 | △ 김범성(41회) | 20만원 |
| △ 이영준(30회) | 30만원 | △ 장성호(31회) | 12만원 | △ 김봉준(41회) | 30만원 |
| △ 이인길(30회) | 50만원 | △ 장재훈(31회) | 12만원 | △ 김형률(41회) | 50만원 |
| △ 이학수(30회) | 700만원 | △ 장명우(31회) | 300만원 | △ 남관희(41회) | 30만원 |
| △ 이한수(30회) | 20만원 | △ 정 문(31회) | 120만원 | △ 류지섭(41회) | 30만원 |
| △ 이환기(30회) | 30만원 | △ 정인화(31회) | 12만원 | △ 박정기(41회) | 20만원 |
| | | △ 정정남(31회) | 132만원 | △ 백선민(41회) | 10만원 |

전재호 재경회장, 본부동창회에 1천만원 기탁

“본부모금활동에 마중물 됐으면 해서...”

전재호 재경동창회장(21회)이 최근 모교발전기금 1천만원을 본부동창회에 기탁해왔다.

전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재경동창회에도 모교발전기금 1천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그는 “모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굳이 본부와 재경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본부동창회의 모금활동에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기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호 동문.

미국중서부동창회, 발전기금 1천달러 보내와

지난 2월 17일 신년총회에서 모은 돈

미국 시카고지역 거주 동문들의 모임인 미중서부동창회(회장 강대철, 20회)가 최근 모교발전기금 1천달러를 본부동창회에 기탁해왔다.

미중서부동창회 김정수 총무(22회)는 지난 2월 17일 시카고근교 ‘산 식당’에서 동문 및 그 가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총회에서 참석자로부터 모교발전기금으로 모은 돈이라고 편지로 알려졌다.

김 총무는 편지를 통해 “이번에 보내는 발전기금에는 지난해 6월 27일 속환으로 별세한 故신지재 동문(16회, 의사)의 미망인이 낸 3백달러, 미국국립과학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최근 은퇴한 김석홍 동문(11회)이 낸 5백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또 이날 참석자들은 동창회보에서 부산고 동창회가 1백억원 모교발전기금모금을 달성했다는 기사를 읽고는 “초량농고는 이미 목표액을 달성했는데 우리는 겨우 70%만 모금됐으니, 부끄럽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날 신년총회에 참석한 동문은 김진환(5회), 김석홍(11회), 허남석(12회), 이근보(12회), 박진철(20회), 강대철(20회), 김정수(22회), 김우갑(26회), 신광해(26회). <황유명 편집위원>

- | | | | | | |
|------------|-------|-------------|--------|--------------------|-------|
| △ 변영호(41회) | 10만원 | △ 허치회(41회) | 50만원 | △ 용마회 | 190만원 |
| △ 신동진(41회) | 20만원 | △ 홍동훈(41회) | 30만원 | (시청:91만, 사하구청:45만, | |
| △ 안광근(41회) | 10만원 | △ 홍석우(41회) | 50만원 | 서구청:54만) | |
| △ 유수호(41회) | 10만원 | △ 41회 산악회 | 30만원 | △ 재동경문회 | 200만원 |
| △ 윤성보(41회) | 20만원 | △ 이용상(43회) | 10만원 | △ 김정욱(전 경중 재직 교사) | 100만원 |
| △ 이경석(41회) | 50만원 | △ 김진수(43회) | 10만원 | △ 남석희(전 경고 재직 교사) | 30만원 |
| △ 이경호(41회) | 30만원 | △ 44회 동기회 | 500만원 | △ 기 타(이름불명) | 3만원 |
| △ 이양결(41회) | 200만원 | △ 장성익(45회) | 50만원 | | |
| △ 이종민(41회) | 10만원 | △ 김경원(54회) | 10만원 | | |
| △ 이주하(41회) | 30만원 | △ 故표종빈(64회) | 500만원 | | |
| △ 이준석(41회) | 10만원 | △ 故박태현 은사 | 1000만원 | | |
| △ 장익조(41회) | 10만원 | (박치호, 27회) | | | |
| △ 정필상(41회) | 10만원 | △ 김해지역동창회 | 300만원 | | |
| △ 조원호(41회) | 10만원 | △ 뉴질랜드동창회 | 50만원 | | |
| △ 천성원(41회) | 10만원 | △ 부산교통공사용마회 | 100만원 | | |
| △ 최효열(41회) | 10만원 | | | | |
| △ 추교용(41회) | 30만원 | △ 사하지역동창회 | 300만원 | | |

- 합계 : 9억 5,919만원

기금 기탁관련 문의
본부동창회 사무총장 황유명
Tel. (051)245-7551~3/Fax. 245-7550

“동기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 27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4월 27일, 28일)



본부회장 : 조용수



재경회장 : 이민부

동기회 소식

◇ 14회 = 고문단 회의 개최

지난 3월 29일 강주신 동기의 주관으로 중앙동 '통영닷컴'에서 고문단회의를 개최, 지난 이사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설명하고 미확보된 예산은 오는 7월에 완전 확보하여 회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참석자는 강주신, 문운용, 박병선, 윤영현, 이길미, 노수덕, 한규환, 김영대, 김용호, 이승호, 김철언, 김화옥, 최진경 동기.

◇ 16회 = 정기총회...조길우 현 회장 연임

지난 3월 15일 저녁 부평동 '구포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지난 해 10월에 가졌던 '졸업 50주년 기념 홈커밍 행사'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천 경 재경동기회장을 비롯한 재경동기들이 참석, 좋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올해 동기회장에는 조길우 현 회장이 연임하기로 결정됐다.

◇ 19회 = 부산동기회 신입회장에 남진현 선임

부산동기회는 지난 4월 17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신입회장으로 남진현 동기를 만장일치로 뽑았다. 또 사무국장에게 문무영, 감사에 박갑진, 이용만 동기를 각각 선임했다. 부회장으로는 이강용, 김영범, 김경재, 이창도, 이병규, 이종명, 이장희, 김태석 동기가 선임됐다.

◇ 27회 = 졸업40주년 홈커밍...푸짐한 행사

지난 4월 27일, 28일 양일에 걸쳐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첫째날 재경동기회(회장 이민부)의 동문들이 전세버스 4대로 경남중을 방문하고 경남고로 이



동, 기다리고 있던 본부동기회(회장 조용수) 집행부와 반갑게 만났다.

모교에서 기념촬영 등 일정을 마치고 해운대 그랜드호텔로 자리를 옮겨 본부 동기회 동문들과 함께 공식적인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다음 날에는 시내투어, 골프모임 등을 가진 뒤 김경진 동기가 운영하는 '수정횃집'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 날 동기회는 경중과 경고 교장에게 학교 발전기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 28회 = 홈커밍 추진위원장에 이만수 동기 추대



지난 3월 12일 연산동소재 '해암뷔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이날 정기총회에는 2012년 회기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와 2013년 행사계획 및 예산 승인 후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에 이만수 동기를 추대하고 앞으로 구성될 추진위에 4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

◇ 30회 = 금정산 등반 겸한 정기총회 개최

지난 3월 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동기회장에 이학수 현 회장의 연임을 결정. 금정산 등반을 겸한 이날 모임은 봄 야유회와 같은 분위기여서 "색다른 총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고.

◇ 31회 = 홍성수 회장, 모교 야구부 초청 만찬



홍성수 동기회장은 지난 4월 3일 자갈치 오아제씨푸드뷔페 (24회, 임철호 동문경영)에서 모교 야구부 감독, 코치진과 야구부선수들을 초청, 만찬을 갖고 올해 경고 야구의 필승을 기원했다.

이 날 홍 회장은 행운의 2달러를 참석한 모든 이에게 증정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어디서 무엇을...

<4회>

△최갑중 = 1월 10일 상배

<5회>

△상기중 = 3월 17일 장남 결혼,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

<10회>

△이현진 = 한국문인 신인문학상 수상자 선정, 2월 16일 딸 결혼, 63빌딩

<13회>

△강영삼 = 3월 9일 장모상, 명지병원 △강연위 = 4월 20일 장남 결혼, 애니버서리 청담 △이창성 = 4월 28일 장남 결혼, 더 청담

<14회>

△강주신 = 2월 14일 아들 결혼, 힐튼호텔 △박만인 = 3월 2일 아들 결혼, The-k 서울호텔 △조규향 = 전 동아대총장, 청조근정 훈장 포상

<16회>

△오광치 = 4월 23일 모친상, 통영시 승례관 △이겸일 = 5월 4일 딸 결혼, 플라텍스 웨딩홀

<17회>

△김병문 = 3월 26일 북·사상구 재향군인회 회장 취임 △신종 = 4월 13일 삼녀 결혼, 범일동 뉴 축복 웨딩홀 △지인식 = 2월 25일 모친상,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19회>

△권철현 = 세종 재단 이사장, 아웅산 순국추모비 건립위원장 취임 △김재근 = 3월 19일 병원개업, 마산 회원구 회원동 429-1 황금B.D 2F △서세복 = 4월 13일 장남 결혼, 선능 메모리스웨딩홀 △정순고 = 5월 10일 차남 결혼, 이스턴 베니비스 △최광훈 = 4월 20일 아들 결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0회>

△김갑수 = 4월 9일 부친상, 신촌 세브란스병원 영안실 △김우홍 = 5월 4일 차남 결혼, 한전남서울본부 웨딩여의프라자 △손영철 = 4월 20일 장남 결혼, 연산동 다비다웨딩홀 △이갑현 = 허베이스피리트 호 유류오염손해배상 검증단 총판단장 취임 △우성하 = 5월 11일 딸 결혼, 라마다 서울 호텔(구 호텔뉴월드) △전일준 = 3월 장남 POSCO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취임

<21회>

△오거돈 = 대한민국 해양연맹 총재, 4월 12일 코모도호텔 국제물류총서 출판기념회(저자대표) △이재홍 = 3월 9일 차남 결혼, 대신교회 △윤상철 = 4월 27일 아들 결혼, 해운대마리나센타 컨벤션웨딩홀 △조현영 = 4월 6일 아들 결혼, 센텀사이언스파크웨딩홀 △최점수 = 4월 6일 아들 결혼, 경동교회

<22회>

△조동홍 = 4월 14일 아들 결혼, 여의도 교직원공제회관 △박재상 = 4월 19일 자녀 결혼, 서울 그랜드하이아트 호텔

<23회>

△강학영 = 3월 17일 모친상, 부산 용호동 성모병원 장례식장 △김태용 = 4월 13일 장남 결혼, 부경대 내 비스타호텔 △박광규 = 3월 31일 장남 결혼, 창원호텔 그레이스홀 △박원수 = 4월 2일 모친상,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방경부 = 2월 26일 부친상, 부산 노포동 침례병원 영안실 △서기식 = 3월 23일 장남 결혼, 서울 장충단성결교회 △신상희 = 3월 7일 모친상, 부산 의료원 장례식장 △유근덕 = 4월 27일 장남 결혼, 천안시 천안세종 웨딩홀 △윤원일 = 3월 9일 장녀 결혼, 더하우스웨딩홀 △정봉규 = 5월 4일 차남 결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조용하 = 4월 20일 아들 결혼, 정신여고강당 주님의교회

<24회>

△김만복 = 4월 7일 차남 결혼, 마리앙스 웨딩컨벤션 △이수 = 4월 20일 차남 결혼, 창원 시티세븐플만호텔 그랜드룸 △여옥주 = 5월 18일 차녀 결혼, 강남구 아모리스 웨딩홀 △최석구 = 서울 백병원장 연임

<25회>

△김영국 = 2월 25일 부친상, 삼성의료원 △김재용 = 4월 13일 차녀 결혼, 해운대 그랜드호텔 △노태호 = 3월 23일 장녀 결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 센타 △박영안 = 3월 6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신성우 = 4월 21일 장녀 결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송정규 = 전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3월 29일 부친상, 해운대 백병원 △우경욱 = 3월 30일 장남 결혼, 서울대 내 엔지니어하우스 △이석희 = 4월 13일 장녀 결혼, 옥수동 성당 △장홍석 = 4월 20일 차녀 결혼, 경동교회 △하성룡 = 5월 3일 딸 결혼, 빌라드 베일리 △허영형 = 5월 12일 장남 결혼, 역삼동 GS타워

<26회>

△김상현 = 4월 27일 장녀 결혼,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 △김용수 = 4월 20일 장녀 결혼, 서울 대검찰청예식장 △김재수 = 4월 20일 딸 결혼, GS타워 △김재용 = 4월 13일 차녀 결혼, 해운대 그랜드호텔 △김원철 = 4월 10일 장인상, BHS 한서병원 장례식장 △김희국 = 3월 30일 딸 결혼, aT Center △박승범 = 4월 16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박용석 = (사)한국토지법학회 회장 선임 △배용호 = 5월 11일 장녀 결혼, 잠실 롯데호텔 △배한수 = 5월 11일 딸 결혼, 해운대백스코 센터인페리어웨딩홀 △신재호 = 5월 18일 딸 결혼, 사학연금공단 웨딩홀 △유상정 = 3월 20일 모친상, 침례병원 △이신우 = 4월 27일 차남 결혼, The-K 서울호텔 (구, 서울교육문화회관) △정익교 = 5월 18일 딸 결혼, 여의도 KBS 신관홀 △조영석 = 3월 10일 장녀 결혼, 강남 웨딩컨벤션홀 △최현 = 1월 26일 장남 결혼, 해운대 그랜드호텔

<27회>

△공민배 = 3월 10일 차녀 결혼, 서울 엘무체 컨벤션 △공창오 = 3월 9일 모친상, 안양 장례식장 △김경민 = 한양대 정외과 교수, 홍조근정 훈장 포상 △김성걸 = 4월 27

<9면에 계속>

◇ 40회 = 정기총회... 회장에 박근성 동기 선출

지난 3월 27일 초량 대한통운빌딩의 뷔페 '시즈'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동기회 8대 회장에 박근성 동기(10번)를, 국장에는 김동근 동기(8번)를 각각 선출.

동호회 소식

◇ 기독교동문회 = 신입회장에 강창덕 동문(24회) 선출



지난 3월 7일 오후 부경대 내 비스타스에서 제11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종현 회장 후임으로 강창덕 동문(24회, 슬로몬서치 이사)을 신입회장으로 선출.

◇ 경불회 = 범어사에서 첫 정기법회 가져



동문 불자모임인 경불회(회장 정영천, 21회)는 지난 4월

“썬 짜오!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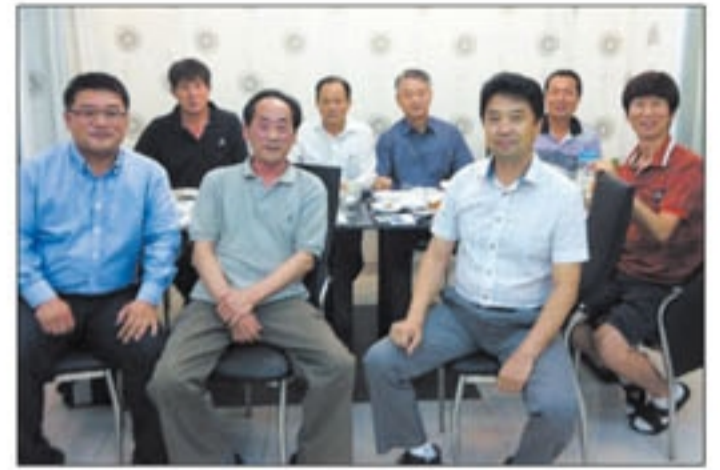
호치민동문회 공식발족... 회장에 박철청 동문(20회)

경남중고 호치민동문회가 지난 3월 15일 박철우 동문(37회)이 운영하는 푸미홍 소재 '밥도둑1번지'에서 첫 모임을 갖고 공식발족했다. <사진>

호치민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 8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박철완 동문(20회)이 회장에, 이석호 동문(25회)이 부회장에, 정진훈 동문(39회)이 총무로 각각 선임됐다.

갑작스런 번개모임 형식으로 열린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출장 중인 인용성 동문(47회)을 제외하고는 사전 연락이 된 동문이 모두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 날 모임에서는 본부동창회가 보내준 동창회보가 배포됐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베트남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나누었다고 정진훈 총무가 본



부동창회에 알려졌다.

이 날 모임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박철완(20), 이석호(25), 조일래(30), 김성준(33), 옥종훈(33), 조정민(37), 박철우(37), 정진훈(39).

20일 오후 범어사 설법전에서 정기법회를 가졌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46명의 동문불자들은 저녁예불을 드리고 범어사 포교국장 지장스님의 '생활과 불교'라는 주제의 법문을 들었다. 법회 후에는 범어사 진입 일방통행로 입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대중공양을 함께하며 선후배간 친교의 정을 나누었다.

◇ 용마바둑회 = 신입회장에 김대욱 동문(29회) 추대

지난 3월 25일 오후 광안리 '회초록' 핫집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대욱 동문(29회, TM마린 대표)을 신입회장으로 추대. 용마바둑회는 오는 6월 30일 모교에서 동창회장기 용마바둑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용마산악회 = 전남 해남 소재 달마산 산행

지난 3월 10일 전남 해남군 소재 달마산(470m) 일원을 등산했다. A, B코스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산행에는 모두 160여명의 회원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일 아들 결혼, 감리교 신학대학 △김안석 = 4월 13일 장남 결혼, 사직 아시아드시티 △김현수 = 3월 9일 장녀 결혼, 라루체 △김형열 = 5월 5일 장남 결혼, 송도성당 △배인환 = 3월 5일 모친상, 해운대 백병원 △성영표 = 5월 4일 장녀 결혼, 엘타워 △손영규 = 4월 14일 부친상, 부산요양병원 장례식장 △신재욱 = 5월 4일 장녀 결혼, 아쿠아벨리호텔 △이양현 = 3월 31일 장남 결혼, 서울대 엔지니어 하우스 라쿠치나 △이원철 = 4월 12일 한방내과 개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8-35 (TEL:02-555-1304) △최용수 = 3월 20일 장모상, 울산영락원 △최용호 = 대우조선해양(주) 경영혁신그룹 부장에서 생산OA그룹장 이사로 승진 △허영도 = 3월 23일 장남 결혼, 울산공업탑 콘벤션 웨딩장 <28회> △박중기 = 삼우중공업(주)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 △권혁우 = 4월 7일 장인상,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노춘홍 = 4월 20일 장녀 결혼, 포항 필로스호텔 △박영제 = 3월 9일 아들 결혼, 스킵라티움 △박철원 = 전 (주)동양 부사장, (주)동양건설 플랜트부문 대표이사 및 동양시멘트 E&C 대표이사 선임 △배명철 = 경상일보사장 연임 (2년 임기) △윤경섭 = 4월 20일 장녀 결혼, 창원 시티세븐 플라호텔 △윤덕승 = 3월 31일 차남 결혼, 서면 더 샵 센트럴스타 △이만수 = KNN 사장 연임 (2년 임기) △최두영 = 3월 21일 모친상, 영락공원 △황인업 = 4월 27일 장남 결혼, 국립외교원 <29회> △김도철 = 4월 14일 장남 결혼, 아펠가모 반포점 △김승민 = 3월 24일 부친상, 강동

경희대 병원 △박국인 = 4월 11일 부친상, 부산 괴정병원 장례식장 △박성재 = 3월 23일 막내딸 결혼, 여의도 웨딩컨벤션 △박영수 = 3월 30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백성욱 = 3월 7일 장인상, 서울대병원, 5월 17일 장녀 결혼, 해화동성당 △배성호 = 3월 22일 장인상, 부산 남천병원 △신영주 = 4월 4일 모친상, 서호병원 장례식장 △어진우 = 4월 24일 장인상, 해운대 백병원 △이성욱 = 2월 25일 장모상, 동래 대동병원 △전장화 = 3월 30일 장녀 결혼, M아모리스 △정순정 = 전 산업은행 부행장, KDB금융그룹 전무 취임 △조승제 = 3월 30일 장인상,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조운제 = 4월 14일 장남 결혼, 충북 청주시 타비롱 아울렛 <30회> △김영주 = 4월 20일 아들 결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김순구 = 3월 8일 부친상, 침례병원 △김성기 = 3월 20일 모친상, 부산 장례식장 △김영준 = 부산 시체육회 이사 연임 △김진권 = 4월 6일 장남 결혼, 서울 우면동성당 △김치영 = 3월 2일 부친상, 좋은강안병원 △박진명 = 4월 17일 장모상, 부산 봉생병원 장례식장 △배경조 = 5월 19일 아들 결혼, 대한통운빌딩 웨딩홀 △서복현 = 법무법인 '새벽' 개업, 부산지법 맞은편 정립빌딩 5층 △신교선 = 3월 19일 모친상, 봉생병원 장례식장 △조용업 = 3월 27일 부친상, 동아대 병원 △정부광 = 3월 11일 부산시체육회 이사 보직 △정재균 = 3월 31일 장남 결혼, 프리마베라 <31회> △김부영 = 4월 20일 차녀 결혼, 삼성동

컨벤션디아망 △류명석 = 본부 부회장, 경남고 운영위원장 유임 △이상철 = 3월 18일 장인상, 부산의료원 △장성호 = 3월 30일 장녀 결혼, 지저동 호텔어포트 △정복재 = 3월 20일 장인상, 부산의료원 <32회> △안정모 = 3월 30일 선명철강대표 사무실개업,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478 H.P:010-3835-0065 <33회> △김일 = '해성돈가' 개업, 부산시 중구 부평동새마을금고 옆. TEL:051-245-2505 △신봉섭 = 중국 산둥에서 귀국, 삼정이엔피 전무 취임 <34회> △김용백 = 3월 20일 모친상, 삼신장례식장 △박기태 = 3월 22일 장인상, 부산장례식장 △박진영 = 3월 11일 부친상, 영도구 민장례식장 △이만호 = 2월 27일 부친상, 김해 현대병원 △정경훈 = 4월 1일 부친상,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35회> △김윤석 = 3월 15일 장모상, 부산의료원 △추병근 = 2월 27일 장인상, 청십자병원 <36회> △임창섭 = 4월 4일 장인상,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38회> △박영표 = 3월 27일 장모상, 부산의료원 △정민화 = 3월 29일 모친상, 부산 강안중은병원 <39회> △정희남 = 3월 29일 부친상, 부산 강안중은병원

<41회> △박동규 = 4월 16일 부친상,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박정의 = (주)청담산업 개업,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448-1번지 113호. TEL:051-728-5679 △정재철 = 3월 9일 본인 결혼, 코모도호텔 <43회> △유법권 = 3월 16일 조모상, 광주 서구농성동 신세계 장례식장

- 부음
▲ 신동춘(8회) = 2월 23일 별세
▲ 김시원(10회) = (전) 궁근정초등학교 교장, 3월 7일 별세
▲ 박인규(10회) = 서울동암장로교회 장로, 1월 31일 별세
▲ 박동우(14회) = 4월 8일 별세, 청량리 성 바오로병원
▲ 박청길(14회) = (전) 영덕제일병원 부원장, 3월 4일 별세, 해운대 백병원
▲ 송경복(14회) = 1월 25일 별세
▲ 임성철(14회) = 4월 9일 별세, 경남 통영적십자병원 영안실
▲ 김무부(17회) = (전) 삼화종합가스 대표, 3월 15일 별세,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 정두희(20회) = 2월 20일 별세, 강남성모병원

<어디서 무엇을>과 <부음> 관련 제보, 투고 및 문의는 본부동창회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1-245-7551~3

김경희 동문의 용마열전 ③ / '요절한 기자' 故 장정호 동문(1회)

불꽃처럼 뜨겁게 살다 간 '타고 난 사회부기자'

김 경 희
(9회, 재경동창회 고문)



故 장정호 선배(1회)는 언론계에 진출한 최초의 용마다. 1회 졸업생으로 신문기자가 됐으니 좋으나 싫으나 '경고 출신 최초의 기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저 그런 기자가 아니었다. 언론계에 숭한 '전설'을 남긴 명 사회부 기자였다.

경남중 최초의 학생잡지 '보금자리' 창간주역

그는 1928년 2월 8일 경남 남해에서 2남1녀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위로 누나가 있었고 아래로 나이 차이가 많은 남동생 장호남 동문(17회)이 있다. 이들 형제는 둘 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다. 남해국민학교에서 '천재' 소리를 들었던 장 선배는 1942년 막 새로 문을 연 부산2중(경남중고의 전신)에 어려운 경쟁을 뚫고 합격했다.

중학 시절에는 초대 학생회 문예부장을 맡아 학생문예지인 <보금자리> 창간호를 엮어냈다. 동기인 고 김택수 선배는 "정호 군이 경남중 때 축구부에서 선수로 뛰었다. 뛰어난 플레이를 해 동기들을 감탄케 했다"고 생전에 회고한 적이 있다.

8.15 해방 후 당시 어지러운 사회 환경 속에서 서울대 문리대에 합격해 예과를 거쳐 본과는 불문학을 전공했다. 서울대 재학 중 그는 모교 야구부가 서울에 원정을 와 시합을 벌이면 매번 빠지지 않고 야구장에 나와 응원에 앞장서곤 했다(동기인 고 정도해 선배의 생전 증언).

장 선배는 당초 문학평론가 될 생각이었으나 대학 졸업 후 생각을 바꿔 1956년 동화통신(同和通信)의 수습 제 1기 생으로 입사, 기자가 됐다. 동화통신에서 8개월간 근무한 뒤 한국일보, 서울신문(사회부장), 다시 한국일보(사회부장), 조선일보로 옮겨 다니며 기자생활을 했다. 실력을 인정받은 기자가 이 신문사 저 신문사로 스카웃 돼 직장을 옮기는 일은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다.

술한 특종으로 명성... 스카웃 돼 신문사 옮겨 다녀

그는 평기자 시절부터 '타고 난 사회부 기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조선일보에서는 '명 사회부장'이라는 말을 들었다. 한국일보사에 있었을 때 한 때 재무부 출입을 맡기자 3개월도 못 견디고 "재미가 없다"며 다시 사회부로 자진해서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사회부장을 하며 1단짜리 기사라도 잘 쓴 기자에게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상대가 민망해 할 정도로 칭찬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쓴 후배기자에게는 대놓고 "바보 같은 놈", "들대거리"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안철환 동문(13회, 전 조선일보 기자)이 증언했다.

자유당 때 이승만대통령의 양아들 이강석을 사칭한 '가짜 이강석'이 경상북도에서 나타났을 때 당시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였던 그는 '귀하신 몸'이라는 말을 기사에 처음으로 등장시켜 사회적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다. 뛰어난 뉴스 감각을 가진 그는 다른 신문에서 1단짜리로 간단하게 취급해버린 기사를 보충취재를 통해 사회면 톱기사로 키우는 재주가 있었다.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였을 때 '수원의 한 어머니가 K고교에 합격한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쳤다'는 1단짜리 기사를 보고 수원으로 가 보충취재를 해 사회면 톱기사로 보도한 일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전국에서 성금이 답지해 한국일보 사회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후 매년 대학입학시즌이 되면 각 신문들이 가난으로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합격생들을 소개하는 것이 관례처럼 됐다.

1964년 일본 도쿄올림픽 때 북한의 신금단 선수의 부녀상 봉기사를 특종 보도한 것도 한국일보올림픽특별취재반으로 특파됐던 장 선배였다. "피의 부름은 동경에서 뜨겁게 맺어졌다"로 시작되는 이 기사를 국제전화로 송고하며 울먹인 것이 사내외에 널리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67년 8월 경남 사천군 소재 '비토섬'에서 있었던 나병환자들과 현지주민들의 집단충돌사건 때 그가 보여준 투철한 기자정신은 사회부기자들 사이에 '교과서'로 남았다. 이 사건은 문제의 섬에 강제 입주하려는 나병환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현지주민들이 집단난투극을 벌여 수 십명이 사망 또는 실종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현장에는 나병환자의 의사체가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이었으나 경찰은 나환자의 시신에 접근하기를 꺼려 신원확인이 되지 않고 있었다. 그 때 서슴없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시신의 옷을 뒤져 신분증을 꺼낸 사람이 장 선배였다고 한다.

그가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법창야화(法窓夜話)'는 당시 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대 히트작이었다.

'동문들의 자랑'이었던 그의 칭찬에 '우쭐'

이런 장 선배를 당시 우리 동문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중앙일간지의 유명한 사회부장이고 편집국장이 우리 동문 선배라는 사실만으로도 뭔가 마음 든든했고 자부심을 느꼈다. 나부터 그랬다. 말로만 듣던 그런 장 선배를 필자가 처음 대면한 것은 1967년 3월 10일 아서원(지금의 롯데호텔자리, 중국식당)에서였다. 동창회에서 '경남중동창회보'를 창간하기로 결정하자 김택수 회장이 현직 언론인 동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 있던 장 선배를 비롯한 몇몇 동문을 부른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장 선배는 "기사는 누가 쓰냐?" "자금은 충분한가?" 등등 실무적인 질문을 따지듯이 퍼부었다. 인상적이었다.

창간호 제작을 위한 편집회의는 이 모임 이후 근 일 년만인 1968년 5월 5일 저녁 재경동창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때 장정호(1회), 정동식(1회), 한준석(3회), 임상욱(3회, 부산), 김영복(5회), 안철환(13회) 동문, 그리고 필자 등 7명이 모였다. 이렇게 해서 그해 6월 1일 달랑 6페이지짜리인 창간호가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회보 창간을 위해 동문서주하는 필자를 장 선배가 세밀하게 관찰한 모양이었다. 창간호를 발행하고 난 뒤 지쳐있는 필자에게 어느 날 장 선배가 전화를 해왔다. 대뜸 "니 오늘 저녁시간 있냐? 광화문 신문로 쪽에 샤프망이라는 룸싸롱이 있다. 7시에 거기서 만나자"고 했다. 그 날 저녁 장 선배는 "회보 창간 아이디어 참 좋아"라며 "너의 준비성과 성실성이 내 마음에 들었다. 욕 봤다"고 칭찬해 주었다. 하늘같은 높은 위치에 있던 현직 언론인인 그가 초년병 총무를 단독으로 불러 칭찬을 해주었으니 정말 흐뭇했다.

그날 그는 "오늘 너에게 양주 먹는 법을 가르쳐줄게" 하고는 "양주의 안주는 냉수가 최고니라"라고 마치 정의라도 내리듯이 말했다. 설마 했는데 그는 테이블 위에 올라있는 마른안주 몇 가지와 과일만 손도 대지 않은 채 양주 한 잔 마시고는 바로 냉수를 한 모금 들이키는 식으로 연거푸 술을 마셨다. 저녁이나 하자더니, 술만 권하는 바람에 그 날 저녁 샤프망에서 나는 배가 고파 혼이 났다.

편집국장 되고 금방 타계... 44살 가까운 나이로

장 선배는 조선일보에서 사회부장을 5년11개월간 한 뒤 1969년 편집국장이 됐다. 그의 승진 소식에 우리 동문들은 하나같이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다. 그러나 일과 술, 이 두가지에만 몰두했던 장 선배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자리에 오른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 간암으로 쓰러지고 만다. 1971년 12월 휴직했다가 이듬해인 1972년 2월 20일 자



1회 동기들로 구성된 축구팀사진. 1967년 연세대 교정에서 3회 동기회와 축구시합을 가졌을 때 찍은 사진이다. 뒷줄 왼쪽에서 3번째가 장정호 동문. 민성기 은사(뒷줄 왼쪽에서 4번째), 1회 동기들의 담임이었던 배길기 은사(뒷줄 오른쪽에서 4번째), 고 정동식 선배(뒷줄 오른쪽에서 2번째), 고 김근준 동문(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 등이 보인다.

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44세. 참으로 억울하고 아까운 나이였다.

그는 마지막 순간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 "이번에 병이 나오면 공부를 더 해서 젊은 기자보다 더 좋은 기사를 써야지"라고 말하고 잠자듯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한 후배기자는 추도문에서 '유족에게 남긴 재산이라고 아무 것도 없다. 기자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기자, 사회부장, 전통 있는 대 일간지 편집국장의 유산치고는 너무도 서글프다.'라고 적었다.

장 선배는 34살 때 27살이던 김복윤(金福允)여사와 부산에서 결혼했다. 해방 전 남해국민학교 시절 은사인 소설가 요산(樂山) 김정환 교수가 자기의 딸을 직접 증매하여 결혼시켰다고 한다. 김복윤 여사는 부산여고(6회, 54년 졸)를 나와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나온 재원으로 착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녀와 장 선배와의 결혼생활은 9년10개월로 끝났다.

미망인은 보험설계사하며 3남매 훌륭히 길러내

필자는 장 선배의 부음을 당시 치안국장이던 최석원 선배(6회)에게서 듣고 최 선배와 함께 여의도 상가로 달려갔다. 상가에서 장 선배와 가까웠던 이원홍 당시 한국일보 편집국장(부산고 3회)을 만나 함께 밤을 새우며 빈소를 지켰다. 나는 술에 취한 채 입관하기 전 누워계신 장 선배의 얼굴에 내 얼굴을 맞대고 울었다. 시신이었지만 전혀 차갑지가 않았다.

그의 장례식은 조선일보 사우장(社友葬)으로 치러졌고 유구는 모란공원에 안장됐다.

젊은 나이에 졸지에 남편을 잃은 김 여사는 외판원생활, 보험설계사, 하숙집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세 자녀를 훌륭히 길러냈다. 장남 윤주(允柱)씨는 연세대 사회학과를 나와 연합통신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고, 둘째 윤선(允善)씨는 이화여대를 나와 서울사대부속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장학사로 있다. 막내 윤석(允碩)씨는 인하대를 거쳐 영국 런던 임페리얼대학에서 "항공물류"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항공대 교수로 있다.

장 선배의 남동생인 장호남 동문(17회)은 1963년도 서울대 공대 화공과에 응시하여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합격한 수재다. 지금의 그의 전공은 화학(생물)공학.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KAIST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 현재 산업기술 연구회 이사장에 재직 중이다.



고 정정호 동문.

인물 포커스

“떠나는 날까지 사과나무를 심었다”

강만수 동문(18회), 산은금융그룹회장 퇴임

강만수 동문(18회)이 지난 4월 4일 이임식을 갖고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서 물러났다.



강만수 동문.

강 동문은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으나 그동안 박근혜 정부로부터 조기사퇴하도록 압력을 받아왔다.

그는 이 날 이임사를 통해 “벌여 놓은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개설한지)한 학기도 안 된 금융대학생을 두고 떠나게 됐다”며 “쉬지 않고 일한 지난 2년은 아름다웠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4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자리에서 3년을 채운 적이 없다”며

“공직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공직자의 길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은금융지주 회장직에서)버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계의)사천왕도 아닌데 (이런 비판을)듣기 싫었다”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떠나는 날까지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말했다.

1970년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강 동문은 국제금융국장 등 재무부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이명박 전 정부의 747 공약의 토대를 만들고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맡은 대표적인 ‘MB맨’이다. 강 동문은 산은금융지주 회장직을 지난 2011년 3월에 맡았다.

오동환 동문(7회), 명예신학박사 학위 받아

두 동생과 큰 아들까지 ‘용마’...서울신학대에 장학금 20억원 출연

오동환 동문(7회, 참관한약국 대표)이 지난 4월 25일 경기도 부천 소재 서울신학대에서 명예 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오 동문은 김해시청 앞에서 동신약국을 경영하면서 김해지역 동창회 회장을 맡아 수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 김해약사회 회장, (재)김해장학회 이사,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김해시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다.

현재 김해 제일교회의 원로 장로인 오 동문은 서울신학대 100주년 기념관 신축과 성결인의 집 건축을 위해 3억원을 헌금하고 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헌납하는 등 10억원 상당을 헌납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인재양성을 위해 20억원을 출연, 서울신학대에 자

신의 호를 딴 ‘동혜(東惠)장학재단’을 설립,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장학금을 출연하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대학 공부 하던 어려운 시절,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공부해야 합니까’라고 기도하던 것이 생각나서 어렵게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출연하게 되었다”고 장학회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두 동생 오성철(14회), 오형철 동문(16회, 약사)과 함께 ‘삼형제 용마’이며 역시 경남고를 졸업한 그의 큰 아들 오세욱 동문(32회)은 인제병원 소아과 의사로 있다가 현재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하나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원장으로 있다.

그의 두 동생도 모두 교회 장로다.

인물 동정

권영길 동문(15회) 창원대 강의초빙교수 임용

권영길 동문(15회, 전 국회의원)이 지난 3월 5일부터 창원대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강의초빙교수로 임용됐다.



권 동문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 창원대 강의초빙교수로서 ‘현대사회학특강’이라는 강좌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김상균 동문(18회) 국민행복연금위 위원장 선임

김상균 동문(18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년 제1차 국민행복연

금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동문은 서울대 사회사업학과에서 학사(1970년)와 석사(1975년)를 마치고 영국 애버딘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1982년)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 발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포럼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옥인영 동문(19회) 신학교 졸업, 목사안수 받아

옥인영 동문(19회, 전 가톨릭대교수)이 지난 4월 22일 분당 합렐루야 교회에서 거행된 한국독립교회 선교협의회 (KAICAM)의 제 27회 목사안수식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옥 동문은 이 날 목사안수를 받은 1백60

김성언 동문 著 <황진이, 보들레르를 노래하다>

퓨전음식 맛보는 듯...문학적 재미 쏠쏠

서양문학과 한국고전문학의 보편성 탐구

독일의 문호 괴테는 만년에 세계문학(Weltliteratur)이란 개념을 주창한 바 있다. 인류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코스모폴리탄



김성언 동문.

답게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통으로 지닌 보편적 감성과 상상력에 기초한 위대한 문학을 세계문학이라 불렀으며 인종과 민족, 남과 여의 구별 없이 그 위대성은 인류의 이름으로 선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실체가 없다는 비판도 있으나 한국문학이 이제 제 민족문화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편협성에서 벗어나 세계문학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괴테의 주장은 21세기에 다시금 새롭게 다가온다.

대학 교단에서 오랜 동안 한국고전문학을 강의해 온 김성언 동문(24회, 동아대 고전문학 교수)의 새 저서 <황진이, 보들레르를 노래하다>는 그 제목이 말해주듯,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과 서양의 시인들이 보여준 보편적인 상상력을 발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문학적 재미를 보여주기 위해

쓴 책이다.

‘갓 대학에 입학한 초년생을 위한 책’이라는 서문의 언급이 있긴 하나, 요즘 주목 받고 있는 인문학의 대중화를 반기는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펼쳐볼 만한 교양서라 하겠다. 우선 우리가 중 고등학교 시절에 교과서를 통해 익혔던 시와 소설 및 수필이 언급되고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문학임에도 전혀 낯설지가 않다. 오히려 낯선 것은 우리나라의 고전 한시나 시가인데, 이것도 서양문학과 어울려 마치 퓨전 음식처럼 입맛에 맞는다. 또한 동서고금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저작과 일화들이 저자 특유의 시니컬한 해학과 어우러져 읽는 재미를 더해주는 것도 이 책이 지닌 장점이라 할만하다. 동문들의 일독을 권한다. (웅진씽크빅, 16,000원)



<황진이, 보들레르를 노래하다>의 표지

명 중에서 최고명자였다.

그는 그동안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장로로 일해왔으며 가톨릭대에서 정년퇴임한 뒤 3년 과정의 신학대를 졸업, 이날 목사안수를 받았다.

서기석 동문(26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서기석 동문(26회)이 지난 4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서 동문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헌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동문은 사법연수원 11기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홍창 동문(27회) 파라다이스그룹 부회장 선임

김홍창 동문(27회)이 지난 1월 1일부터 파라다이스그룹 부회장으로 신규 선임됐다.



김 동문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제일제당에 입사, 비서실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CJ투자증권 사장, CJ GLS 사장, CJ 제일제당 사장 등을

역임했다.

조병현 동문(28회) 서울고법원장 취임

조병현 동문(28회, 사법연수원 11기)이 지난 4월 1일 제45대 서울고법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최근 일부 판사들의 ‘법정 막말파문’을 의식한 듯 “법정에서의 언행은 국민이 법원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 하나”라며 법원 관계자들에게 법정 언행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학수 동문(30회)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에 위촉

이학수 동문(30회, 변호사)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추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상임위원(임기 3년)으로 위촉됐다.

김형훈 동문(40회)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취임

김형훈 동문(40회)이 지난 2월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장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경남대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 3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5기)을 거쳐 춘천지법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해왔다.

기고 / 수도산~가야산 종주기

눈 아래 펼쳐진 樹林과 連峰의 파노라마... 가슴 땀 뚫려



단지봉에서 바라 본 수도~가야 종주능선. 수림과 연봉이 장엄하게 펼쳐진다. 오른쪽으로 멀리 솟은 봉우리가 가야산 정상이다.

박진주 (28회, 의사)

지난 3월 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수도~가야 능선종주를 했다. 당초 동계설악산종주산행을 계획하고 준비해왔으나 갑작스런 설악산 입산금지로 인해 산행지를 수도~가야 종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참가자는 오기현(20회), 이충덕(23회), 한효용(30회), 박경배(오기현 동문의 친구, 구덕산우회 특별회원), 그리고 본인 등 모두 5명. 구덕산우회 홈페이지에 올라 온 오 대장의 3페이지에 달하는 치밀한 산행계획서에 따라 우리는 각자 준비물을 챙기고는 3월 1일이 오기를 기다렸다.

수도~가야종주는 '우리나라 3대 능선종주코스' 중 하나로 꼽힌다. 수도~가야종주코스는 경북 김천의 수도산(1,317m)에서 경남 거창의 가야산(1,430m)에 이르는 능선을 타는 산행코스다. 수도산에 올랐다가 동남능선을 따라가면 단지봉(1,327m)과 목동령을 거쳐 해인사로 유명한 가야산에 이르게 된다. 능선길이가 26km로 비교적 짧은 편이나 평균 고도 1,200m의 고원으로 이어지는 능선길을 걸으며 눈 아래에 펼쳐지는 수림과 저 멀리 가야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연봉들의 파노라마를 바라보는 맛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

고졸한 멋 풍기는 수도암... 짐 나눠지고 산행 시작

◇ 3월 1일

새벽에 나오니 아직 공기는 매우 차갑다. 부평역에서 경배행님과 합류, 7시30분 사당역 4번 출구로 나서니 이미 오기현형님과 충덕형님이 먼저와 기다리고 있다. 조금 후 박총과 그의 애마가 도착하면서 우리는 짐을 싣고 바로 출발이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김보상에게서 전화가 온다. 좋은 산행이니 재미있게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가야산 가기 전 안부의 아영지를 소개한다. 남김천 물계이트를 나와 꼬불꼬불 지방도에 들어서니 개천 주위로 홍수로 사태가 나서 도로도 일부 유실되고 주변 논밭과 개천이 모래로 뒤덮여있다. 아마 기후온난화로 많은 비가 온 것이고 이는 인간의 탐욕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윽고 수도암 주차장에 도착, 짐을 재분배해서 배낭을 다시 짰다. 각자 배낭무게가 만만치 않다. 수도암에 들어서니 아무런 조형물이 없는 담백한 여백의 미를 보이는 절 마당이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고 여유롭게 해준다. 절 마당을 가로질러 대웅전을 보니 빛바랜 단청과 곱스러운 본연의 나무색을 띄는 기둥, 오랜 세월을 떠받친 주춧돌이 합쳐져 오래된 절집의 고졸한 맛을 풍긴다.

대웅전 뒤로 이제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된다. 가파른 산길을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오른다. 1시간쯤 진행 후 휴식과 함께 빵으로 점심식사를 한다. 2시쯤 수도산 정상 입구에 도착, 기현형님은 그곳에서 배낭을 지키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올랐다. 가는 길이 북사면이라 눈 녹은 물이 얼어서 매우 미끄럽다. 겨우 기어가듯 그 곳을 통과해 정상에 서니 날씨가 약간 흐려 덕유산 향적봉만 겨우 맛보기처럼 보여준다.

다시 단지봉 쪽으로 계속 진행하니 남사면 쪽은 눈이 녹아 질퍽거리고 북사면은 눈과 얼음으로 매우 미끄러운 길의

연속이다. 다들 무거운 배낭으로 인해 천천히 걸어가니 5시쯤 송곡령에 이른다. 산속의 해는 빨리 진다. 벌써 산그늘이 넓게 펼쳐져 어둑어둑해지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한기가 든다. 능선에서 아영지로 보아두었던 임도를 찾아 내려간다. 임도는 바닥자체가 편평하고 넓어 텐트치기가 좋고 절개지 사이로 물이 나오니 식수를 구하기 좋다. 임도를 아영지로 택한 기현형님의 관측이 이리에서 나타난다. 다들 매뉴얼에 따라 텐트치고 들어가 버너에 불붙이니 훈훈한 것이 호텔방 부럽지 않다. 우선 LA갈비 구워서 보드카와 소주를 마시니 기분이 고조되어 세상이 돈짜만 하게 보인다. 된장찌개에 저녁 먹고 10시에 침낭 속으로 들어갔다.

눈 녹여 떡라면에 커피 한잔... 세상 부러울 게 없어

◇ 3월 2일

오늘은 3일중 가장 많이 걷는 날이다. 아침 5시30분 기상, 떡국으로 아침식사를 했다. 텐트를 개고 배낭 정리하여 8시에 출발. 기상에서 2시간 30분 만에 후다닥 정리하고 출발이다. 자찬(自讚)하자면 대단한 관측과 팀웍이 아닐 수 없다.

임도로 진행한 후 눈 덮인 가파른 능선을 치고 올라가 단지봉으로 가는 등산로와 만나 계속 진행한다. 길은 다니는 사람이 적어 잡목이 우거져 걸음을 힘들게 만든다. 1160봉우리 지나 어느덧 10시경 단지봉 정상에 이른다. 오늘 날씨는 우리의 산행을 축하하는 듯 쾌청하기 이를 때 없다. 단지봉 정상은 단지뚜껑같이 넓은 평지가 펼쳐져있고 주변에 가리는 것이 전혀 없어 일망무제란 말은 이런 곳에 쓰는 것이리라. 멀리 서북쪽으로 덕유능선이 머리에 흰 띠를 이고 잔잔한 파도 모양으로 펼쳐있고 서남쪽으로는 반야봉 천왕봉의 지리능선이 들쭉하게 서있으며 동쪽으로 우리가 가야할 능선길이가 굽어져 보일 듯 말 듯 이어져 보이고 저 멀리 가야산 정상이 돌로 만든 성같이 어렴풋이 보인다. 예해라 좋고 지화자 좋구나! 이 내 가슴이 땀 뚫린 듯 시원하구나.

단지봉을 내려와 좌일곡령을 지나 1124m의 암봉에 이른다. 길은 북사면으로 나있고 눈과 얼음으로 거의 거울같이 미끄러워 보인다. 아이젠을 차고 있었지만 진행이 만만찮다. 암릉은 몸을 이리 쏘고 구부리고 기고 당기는 이형환위 솟법으로, 돌이 깔린 곳은 돌을 따라 미중보 수법으로, 얼음판 길은 아이젠을 콕콕 박으며 천근추의 수법으로 통과해야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찔하다.

이후 12시경 양지바른 능선에서 눈을 녹여 떡라면을 끓여 먹고 커피까지 한잔 하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아하, 따뜻한 햇볕과 커피 한잔에 인간본연의 평안을 느낀다면 세상의 부귀란 한잔 뜬 구름과 같은 것 아니겠는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앞을 지나는 사람을 본다. 1시간쯤 보낸 후 두리봉을 향해 돌격 앞으로. 충덕형님 광고산에서 닦은 실력이 만만찮다. 선두만 세우면 바람같이 사라져 버린다. 목동령을 지나 분계령에 오니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김보상이 전화로 이야기 해준 숙박지까지는 무리여서 두리봉에서 아영하기로 결정한다. 두리봉에 오니 벌써 시간은 6시 반, 텐트를 치기 바쁘게 옆에 보니 혼자 온 산객이 1인용 텐트를 친다. 두 번째 보는 사람이다. 텐트 속에서 남은 LA갈비와 양주한잔 눈 녹인 물에 참치 김치찌개



셋째날 두리봉 막영지에서 출발하기 전. 왼쪽부터 한효용(30), 이충덕(23), 박진주(28), 박경배(오기현 친구), 오기현 동문(20).



수도~가야 종주 산행코스도.

에 식사를 하니 어느덧 시간은 11시30분. 기현형님은 밖에서 혼자서 비박을 하고 우리 넷은 널찍하게 텐트 속에서 취침에 들어간다. 오늘 운동이 심했는지 머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 꿈나라로 직행이다.

이들간 함께 했던 능선들을 뒤돌아보며 아쉬움

◇ 3월 3일

오늘은 가야산만 올라가면 백운동으로 하산하는 널찍한 일정이다. 7시30분 기상, 떡국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10시에 출발한다. 출발하자 눈 쌓인 가파른 내리막길을 한참 내려 가야 했다. 중간 중간에 키보다 높은 산죽 밭이 군데군데 펼쳐진다.

부박령에 이르니 안락한 안부가 잠깐 쉬기도 아영을 하기에 좋아 보인다. 여기서 잠깐 쉬면서 물 한모금 마신 후 계곡을 따라 올라간다. 가면서 혹시 물이 있을까 살피지만 아쉽게도 물은 발견하지 못한다. 이후 가파른 길을 올라치니 눈 덮인 안부가 나타나고 이후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더니 드디어 우두봉 아래 안부에 도착한다. 시계를 보니 12시30분. 기현형님이 배낭 지키고 나머지는 우두봉 올라간다. 저 멀리 덕유산과 지리산이 보이고 단지봉과 함께 이들간 함께했던 능선들을 보니 이별의 아쉬움이 마음속 깊이 들어앉는다.

이후 칠불봉 북사면의 빙판길을 조심조심해서 내려오고 계단 길을 한참 내려오니 4시에 백운동 주차장에 도착, 시원한 맥주 사이드 한잔으로 갑증을 삭이니 이번 산행은 여기서 끝이다.

67살의 기현 경배형님, 64살의 충덕형님이 20kg 짜리 배낭을 메고 이 험한 구간을 완주한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짐을 지고 온갖 잡일을 마다 하지 않은 막내 효용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다.

☕ 초대석 / 이상택 동문(13회, 안양 샘 병원 이사장)

“건강비결은 ‘小食多動’...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 만난 사람 = 박승준 본보 편집위원(27회)

경기도 안양에서 ‘샘병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병원은 여러 개 된다. 그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병원이 ‘안양 샘 병원’이라는 이름의 종합병원이고 그 외에도 ‘샘 여성병원’, ‘샘 한방병원’도 있다. 이들 병원들은 모두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에 속해 있고 이 재단의 이사장이 이상택 동문(13회)이다.

건강 위해 일주일에 3, 4일 새벽등산

효산의료재단이라는 명칭은 그의 호에서 딴 것이다.

“내가 등산을 좋아하거든. 주로 새벽에 산에 가는 게 취미야. 그래서 내 호가 효산(曉山)이야, 새벽산이란 뜻이지.”

그는 일주일에 삼사일은 새벽에 산에 올라간다고 했다. 주로 집에서 가까운 산을 찾는데 보통 두 세시간 쯤 걸린다고 했다. 환갑 넘어서 시작한 골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간다. 얼굴혈색이 좋고 호리호리한 체격에서 건강미가 넘친다.

이 동문은 대뜸 작고한 정동식(1회), 김택수(1회) 두 선배와 김경희(9회, 재경고문) 동문의 이름을 대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 선배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다들 기억력이 아주 좋으시다는 거야. 나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말이야. 만약 그 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동창회가 어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하나같이 모교에 대한 애정이 깊고 열정적이었지.”

이어 묻지도 않았는데 정홍원 총리(경남중 17회)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늘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어디 가든 VIP대접을 안 받으려고 하고... 정말 좋은 동문후배야”

그는 본부동창회의 부회장으로, 또 재경동창회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우리 동창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일을 했다. 특히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어왔다. 지금도 모교 야구부가 상경하면 재경동창회에서 제일 먼저 이 동문에게 손을 벌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포에 곧 새 병원...아프리카 등지에서 의료봉사

-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항상 바쁘게 지내지. 여기서 가까운 군포에 새로운 샘병원을 5월 중순쯤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야. 만도기계사의 사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했지. 안양지역권 의료는 지금까지 동쪽에서는 한림대 병원이, 서쪽에서는 안양샘병원이 맡아왔지만, 남쪽에는 큰 병원이 없었어. 그래서 새로 군포에 병원을 내리는 거지.”



이상택 동문.

그는 부산대 의과대에서 내과를 전공했다. 부인 황영희 여사는 부산여고를 수석졸업하고 역시 부산대 의과대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했다. 이 동문은 안양 근처에 주둔한 군부대에서 군의관으로 군생활을 한 인연으로 안양에 자리 잡고 첫 병원을 열었다. 그것이 1967년도였다. 그러니까 안양에서만 내리 46년 동안 살고 있는 셈이다. 그는 안양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안양지역권에 대한 봉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이 동문부부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퓨처 파운데이션(AFF)’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남아공, 짐바브웨, 말라위, 스와질랜드 등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 재소자 교화협의회 일도 하고, 중국 선양(瀋陽)에도 사랑의 병원을 만들어 의료봉사를 하고도 있기도 하다. 이 밖에도 경기도 수영연맹을 비롯해서 여러 체육회의 회장을 맡기도 했고 아마추어 합창단을 만들어 단장도 했다. 모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다.

그는 중국이야기를 하면 끝에 자신의 출생지가 내몽고라고 털어놓았다. 부친이 동경제대 수의과를 나와 내몽고에서 검역관으로 일할 때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거기서 일본군관사에서 다섯 살 때까지 살았지. 내몽고의 그 지독한 겨울추위가 지금도 생각이 나. 아버지는 검역관을 하면서 번 돈을 낮에는 일본군 장교들에게 뺏기고, 밤에는 독립군들이 와서 가져갔다고 말씀하셨어. 해방되기 1년 전에 온가족이 내몽고에서 도망쳐 나와 곁에서 상하이까지 갔는데, 3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러더군. 그렇게 해서 내가 다섯 살 때 고향인 양산으로 와서 살았지. 아버지는 양산 종축장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나중에 수의사로 개업하셨어.”

모교발전기금은 ‘소수고액’ 보다 ‘소액다수’가 바람직

-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우리 동문들에게 건강을 위한 팁을 주신다면...

“네 글자로 ‘소식다동(小食多動)’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나이 들어가면서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 건강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

등산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음성이 높아졌다.

“우리 집 사람은 부어고 출신인데, 우리로 치면 14회야. 나는 산을 오를 때 1단 기어, 2단 기어, 3단 기어를 차례로 넣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기어가 1단에서 2단으로 바뀔 때 슬쩍 옆으로 빠지지.(웃음)”

이 동문은 체력에 자신이 있는 듯했다. 그는 “나는 4단 기어를 넣은 채로 산악마라톤 하듯이 등산을 할 수도 있지만 체력을 아끼기 위해 대개는 3단까지만 기어를 넣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랑처럼 “경남고 다닐 때 학교에서 출발, 다대포, 송도, 남부민동을 거쳐 학교로 돌아오는 마라톤대회에서 5등 정도는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지금 동창회에서 1백억원을 목표로 모교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동문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르겠지만, ‘소수 고액’보다는 ‘소액 다수’로 모금이 이뤄졌으면 해. 그게 더 좋은 거야. 심시일반의 정신으로, 더 많은 동문들이 모금에 참여해서 모교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하는거지.”

이 동문은 인터뷰 끝머리에 “내 인생이 4분의3은 지나가고 4분의1만 남아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남은 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까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청년처럼 씩씩하게 말했다.

용마

동문 여러분을 친절하고 저렴하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오 용 환 (31회)

용마

Hits 집

전망이 좋은 Hits 집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48 바다산책빌딩 2층
미월드 놀이동산 앞 수변공원에 위치

예약문의 051)759-7337, 010-3574-5030

기고 / 어느 '다마꾼'의 당구 이야기 ②

긴장감으로 나의 큐질은 경쾌함을 잃어가고...

고 석 주 (30회)

내가 태릉시장통의 볼모아당구장에서 벌어질 당구대회에 나가기로 한 것은 사실 상금이 탐 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토너먼트 방식이라 대략 일곱 게임만 전승(全勝)하면 우승인데, 나는 이 대회를 통해 젊었던 시절 그 당시의 당구감각을 90% 만이라도 찾고 싶다는 욕구에 몸부림쳤던 것이다.

또 나는 자신이 있었다. 나는 이미 그 볼모아당구장의 최고 고수 두 명과 20점치기 친선게임에서 30분 만에 3:0으로 이긴 적이 있었다.

모여든 선수들을 보니 하나같이 '죽쟁이들'

지난 1월 20일 태릉시장통 동네당구시합을 하루 앞두고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내일 당구시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응- 당근이지~"

"술 좀 그만 마시고, 내일 지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술 안 마시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형, 하여튼 내일 잘 좀 쳐보세요!"

"알았어. 내가 그 당구장의 최고고수 두 명을 잡은 것 너도 알고 있잖아."

나는 후배에게 안심하라고 이르면서 내심 51%의 승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고수와 하수, 하수와 고수가 시합을 할 때 고수가 항상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고수는 51%의 승률에 항상 승자의 위치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나는 단 1%의 승률로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것이 모든 도박의 원리이며 승자의 티켓 아니던가.

다음날 아침, 내가 살고 있는 행신동에서 버스를 타고 광화문 가서, 지하철 5호선으로 바꿔 타고 왕십리역에서 중앙선으로 환승하여 11시 30분쯤 태릉시장통의 볼모아당구장에 도착했다. 이미 도착한 선수들은 역시나 그 동네의 당구장 죽쟁이들 스타일이 물씬 풍기는 모습들이었다. 죽쟁이들이란 매일 당구장에서 죽치는 선수들이기에 조심해야 한다. 그 자들은 항상 '큐가 살아있는' 놈들이기 때문이다!

참가선수들 중에는 태릉의 조기축구회원들도 있었다. 긴 오리털코트를 입고서 새벽부터 축구를 하다가 당구장에 시합을 하러 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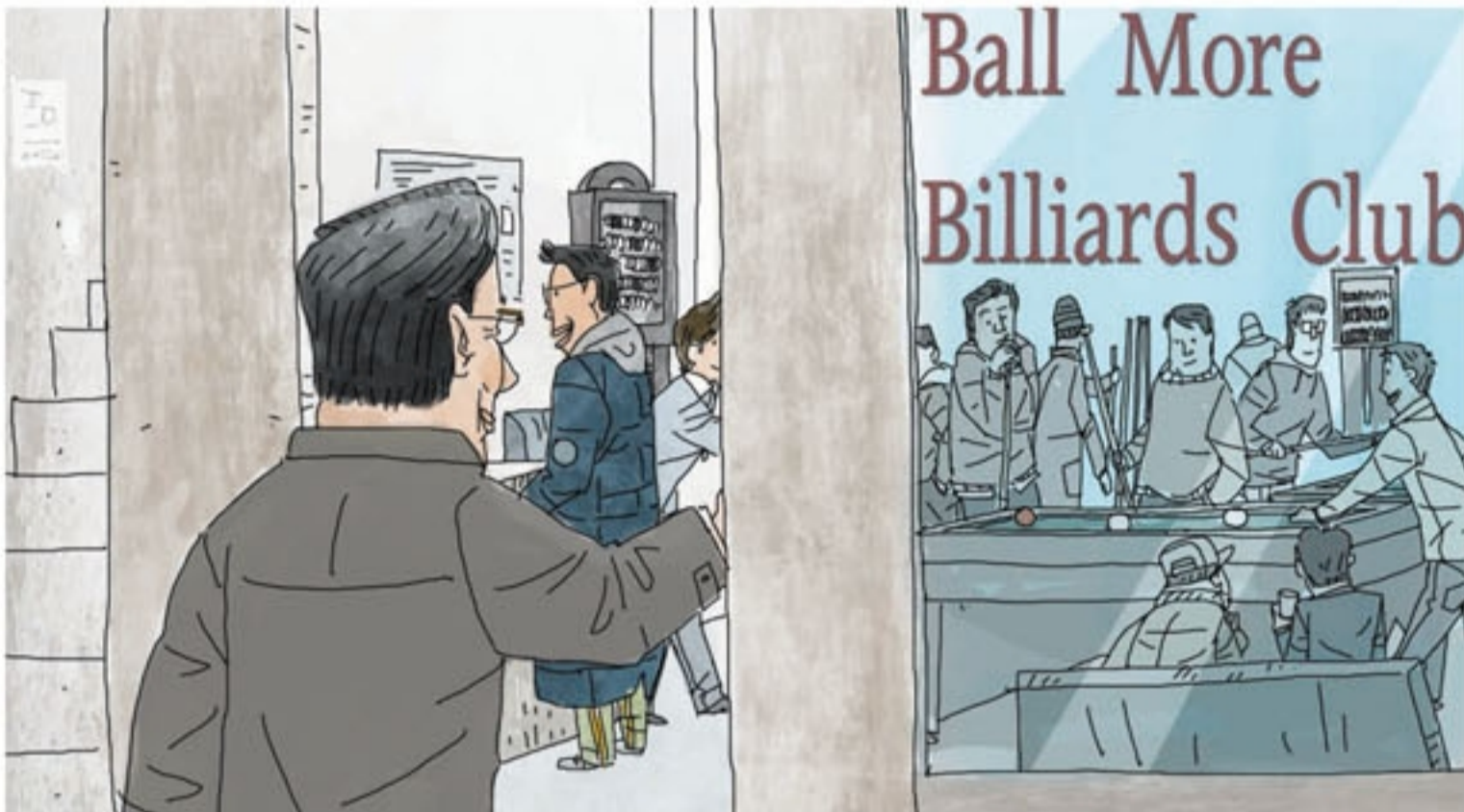
시합의 조를 짜기 위한 출석을 부르는데 출석인원은 24명 밖에 안됐다. 예상외로 결원이 많았다. 나는 속으로 오늘의 시합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편해졌다. 대여섯 게임만 이기면 우승권에 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는 짐작으로.

3인씩 8개조로 나뉘어 시합... 1차에서는 부전승

볼모아당구장의 사회 보시는 분이 조 편성과 대회 진행방법을 알렸다. 참가선수가 24명이고 다이(臺)가 8개이니 24 나누기 3으로 하여 8개 코트(조)로 편성한다는 것. 한 개의 코트에 3명을 배분하여 한 코트 당 1명의 부전승 행운티켓을 주고 2명이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의 승자는 부전승 티켓을 쥔 선수와 게임을 해서 각 코트 당 우승자는 8강으로 진출한다는 것 등등.

그렇게 게임률이 결정되고나서 추첨함의 티켓을 차례대로 하나씩 뽑는데 내 차례가 돼 티켓을 뽑아보니 3코트의 부전승 넘버가 찍힌 티켓이 뽑히는데. ㅎㅎㅎ. 나는 내심 한 게임만 이기면 8강으로 진출하게 되니... 이게 웬 떡이야! 싶었다. 이거 오늘 우승은 그리 힘들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기분이 좋았다.

나는 우리 3코트 선수 두 명이 하는 게임의 심판을 봐주면



일러스트 = 조재철

서 '이제 내가 지금의 승자와 한게임만 이기면 8강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런 여유 있는 생각에서 상금 50만원에 대한 욕심이 슬슬 올라오는 걸 느꼈다.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 부터 말이다.

우리 조에서 첫 게임은 30대 후반의 젊은이가 이겼다. 나는 이 젊은이가 볼모아당구장의 A그룹군이 아닌 B그룹군으로 파악했다. 예전에 함께 게임을 해봤던 볼모아당구장의 두 고수에게는 조금 딸리는 실력이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그 만만한 젊은이를 이기면 쉽게 8강으로 올라가려니 생각하면서 초구를 선정하는 뱅킹도 허술히 쳐서 초구를 그 젊은이에게 뺏겨 버렸다. 중대(보통 크기의 당구다)에서 특히 당구알 수를 적게 놓는 게임에서는 초구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젊은이가 초구를 무난히 맞추고 그 다음 볼로 쉬운 가라구가 서터니만 그것까지 맞춰버리네. 나는 내심 '앗! 그러면 안돼!'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젊은 친구는 신들린 것 마냥 초구에 7점을 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허 참...

"아직 끝나지 않았어! 썩어도 준치라는 걸..."

이윽고 큐대를 잡은 나는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다. 긴장감으로 나의 큐질은 무겁게 나가고 있었다. 경쾌함이 떨어져버렸다. 두 세 큐를 치는 동안 나는 2점을 치고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점수차는 7:2.

그 젊은이 또 다시 4점을 쳤다. 점수 차는 11:2 상대방이 단 한 점만 치면 패배하는 그런 절박한 시간이 되었다. 그런 순간일수록 내가 치는 당구공은 아슬아슬하게 빠져버렸다.

상대방의 단 한점(뚫대)을 남겨두고, 10점, 15점을 치며 따라잡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날 그런 행운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상대방의 공은 마지막 한 점을 냉정하게 맞춰버

리고 말았다. 12:2로 완패! 게임시간은 단 7분!

나는 초반 첫 게임에서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다. 아, 그 허무감과 허탈함이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패배의 원인은 12점치기 게임에서 초구를 상대방에게 내어준 것이었다.

일찌감치 탈락한 나는 대회에 참가한 태릉시장통의 당구 매니아들의 구질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12점 게임에서 보통 끝내는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였다. 내 느낌으로는 모두 만만한 상대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날 시합은 예전에 나에게 패했던 그 당구장의 최고고수가 우승을 하고서 끝났다.

시합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중랑역으로 후배와 함께 걸어오는데 후배가 말했다.

"형! 축 쳐진 어깨를 보니 마음이 아픈데요. 힘 좀 내십시오!"

나는 중랑역 개찰구로 들어가면서 쓰린 속을 감추고 후배에게 한마디 던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볼모아당구장 멤버들 즉흥칠 때, 이 형님이 들린다고 해라! 그 당구장의 즉흥판이 깨지도록 만들 테니! 내가, 이 석주가, 이제 나이 들어 기력은 조금 빠졌을 진 모르지만, 썩어도 준치란 걸 보여 줄 테니"

<끝>

필자 고석주 동문은..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도시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하다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지적도를 서비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012년 재경동창회가 주최한 제5회 용마당구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받습니다.

각종 기고문, '용마에세이', '편집자에게' 등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시오

보낼 곳 = yongmanews@gmail.com

승효상 동문의 한국건축 산책 ① - 종묘

이른 아침 홀로 종묘정전의 월대에 서 보면...



정문에서 본 종묘정전.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길이의 기와지붕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그러나 이 위대한 건축물의 본질은 규모나 시각적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 정전 앞의 비운 공간에 본질적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은, 굳이 비교하자면, 사막의 고요나 천지창조 전의 침묵과 비교해야 한다.

◇ 연재를 시작하며..

새 연재물로 '승효상 동문의 한국건축산책'을 이번 호부터 실습니다. 승 동문은 '비움의 미학'을 내세운 건축설계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명건축가입니다. 그는 이번 연재를 통해 우리 동문들을 국내 유명 건축물들이 있는 현장으로 안내, 한국건축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한 자신만의 사유를 유려한 필치와 탁월한 안목으로 들려줄 것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비움의 미학'을 극대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한국건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 종묘다. 우리 한국인의 귀소본능을 충족시키는 원형질적 공간이다. 서울은 600년 고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개발의 광풍이 불과 지난 3, 40년 사이 서울의 동양화적 아름다움을 왜곡된 서구의 도시이론으로 황칠하여 도시는 일그러졌고 고요한 풍경은 악다구니의 모습으로 개벽되고 말았다. 도처에 물신(物神)의 망령이 꿈틀대는 이 서울 속에, 그래도 우리를 끊임 없이 정화시키는 장소가 바로 종묘이다. 서울의 한 북판 종로에 면해서 5만6천여 평의 면적 위에 오늘날까지 그 기능을 잃지 않고 조선왕조의 신위들을 모시고 있는 이곳은 서울의 중심성을 회복하게 해주는 경건한 장소이며 우리의 전통적 공간개념인 비움의 미학을 극대화하고 있는 건축이다. 유교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 조선왕조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개국을 하자마자 경복궁의 양 측에 사직과 종묘를 만든다. 한양으로 천도를 한 이듬해인 1395년 9월에 종묘정전(宗廟正殿)이 7칸 규모로 창건되었고 이후 몇 차례 증, 개축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정전 앞 비운 공간은 우리의 근원을 성찰하게 해
종묘정전은 우선 그 크기가 압권이다. 동서로 117미터, 남

북으로 80미터의 담장이 두른 이 정전은 예상을 갠 그 길이가 주는 장중한 자태가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정문인 남쪽의 신문(神門)을 들어서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길이의 기와지붕이 지면을 깊게 누르며 중력에 저항하고 있다. 지붕 밑의 깊고 짙은 그림자와 붉은 색의 열주는 이곳이 무한의 세계라는 듯 방문객을 빨아들인다. 일순 방문객은 그 위엄에 가득 찬 모습에 침묵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

시라이 세이지(白井晟一, 1905~1983)라는 일본의 한 건축가가 이 건축을 보고 '동양의 파르테논'이라고 극찬하여 수많은 일본의 건축가들과 학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하며 동일한 감탄사를 토로했지만, 그들이 강조한 것은 파르테논 같은 외관의 장중함이었을 게다. 그러나 종묘정전의 본질은 정전 자체의 시각적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 바로 정전 앞의 비운 공간이 주는 비물질의 아름다움에 있다. 굳이 비교하자면 가이 없이 넓은 사막의 고요나 천지창조 전의 침묵과 비교해야 한다.

가로 109미터, 세로 69미터의 월대(月臺)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비움 자체이며 절대적 공간이다. 1미터 남짓 하지만 이 지대는 그 사방이 주변 지면에서 올라와 있는 까닭에 이미 세속을 떠났으며, 담장 너머 주변은 울창한 수목으로 뒤덮여 있어 대조적으로 이 지역을 완벽히 비워진 곳으로 인식하게 한다. 마치 진공의 상태에 있다.

제관이 제례를 올리기 위한 가운데 길의 표정은 우리를 피안(彼岸)의 세계로 이끄는 듯 하며, 불규칙하지만 정돈된 바다 돌판들은 마치 신의 지문처럼 보인다. 도무지 일상의 공간이 아니며 현대 도시가 목표하는 기능적 건축이 아니다. 그래서 물신주의와는 반대의 편에 있으며 천민주의와는 담을 쌓고 있다. 바로 이는 영혼의 공간이며 우리 자신을 질문하게 하는 본질적 공간인 것이다.

좋은 건축과 건강한 도시는 그것의 비움을 통해 가능
비움, 이 용어는 이제 서양의 현대건축에서 새 시대 새로운 건축의 키워드가 되어 있지만, 이는 본디 우리의 선조들



종묘 담장 너머는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여 있어 대조적으로 종묘를 하나의 완벽히 비워진 곳으로 인식하게 한다.

의 상용어였으며 우리의 옛 도시와 건축의 바탕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비움은 추방해야 할 구약이 되었고 채우기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 도시는 악다구니하는 한갓 건조물로 가득 차고 말았다.

좋은 건축과 건강한 도시는 우리 삶의 선함과 진실됨과 아름다움이 끊임없이 일깨워지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비움과 고독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물신의 탐욕이 과도히 지배하는 이 시대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고독을 다시 찾아 이를 마주하고 우리의 근원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비워진 곳, 그런 비움의 도시가 결국 우리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것이며, 종묘의 마당은 이에 선언이었다.

한국인의 정체성에 의문이 든다면, 이른 아침 혹은 늦은 오후, 홀로 종묘정전의 월대 위에서 보라. 맑은 영혼의 소리가 보일 것이며 그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게다.



승효상
(25회, 건축가)

박승준 동문의 체험 중국 이야기 ⑦

언제 어디서든 노름판 벌이는 중국인들



박승준

(27회, 전 조선일보 베이징특파원,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노름이라면 깜빡 죽거나 자다가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인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스톱 등 노름을 꽤나 좋아하는 편이지만 노름빈도나 열중도 등에서 중국인들에게는 족달불급(足脫不及)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중국인들의 노름벽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중국인들의 피 속에 노름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녹아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다. 그만큼 노름은 그들에게 생활화, 체질화돼 있다.

체질화 된 노름벽... 입어당도 옹호하고 나서

중국을 점령, 1271년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칸은 중국인들에게 도박금지령을 내렸다. 이 사실을 두고 중국의 수필가며 문명비평가인 입어당(1895~1976년)은 저서 '베이징 이야기'에서 한마디 하고 나섰다. "도박에 대한 편견은 인생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 쿠빌라이는 아마도 인생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입어당이 이렇게 중국인들의 노름벽을 감싸고 나선 것을 보면 결국 그도 어쩔 수 없는 중국인이구나 싶다. 그러나 입어당이 거창하게 '인생철학'까지 들고나와 중국인들의 노름벽을 옹호한 데에서 우리는 중국인들의 삶과 노름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인의 노름벽을 두고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국음식점 주인과 종업원의 노름이야기' 일 것이다. 연말에 중국집주인과 종업원이 노름판을 벌인 끝에 그 다음날 식당주인과 종업원의 자리가 바뀌고 만다는 이야기.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한 두가지가 아니나 여기서는 다 접어두고 필자가 직접 겪었던 사례들만 이야기해보겠다.

골프장 캐디들끼리 손님 스코어로 돈내기

10여 년 전, 타이베이(臺北) 근교에 있는 단수이(淡水)라는 골프장에 갔을 때였다. 그 골프장의 캐디는 40대 중반의 남자캐디로 손님 마다 한명씩의 캐디가 배치됐다. 우리 일행 4명이 4번 홀을 끝내자 웬 일인지 캐디들끼리 돈을 꺼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캐디들은 노름을 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의 3번홀까지의 스코어로 각자 맡은 손님의 핸디를 정하고 그에 따라 4번째 홀부터 매 홀 손님의 스코어로 자기들끼리 내기도박을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날 우리는 그들의 경주마이었던 셈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후반 9홀을 돌 때 일어났다. 어떤 홀에서 내가 어프로치 샷을 실수하자 나의 캐디가 화난 표정으로 나에게서 아이언클럽을 뺏다시피 해서는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헤드 업 하지 말고..."라며 시범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나의 어프로치샷 실수로 돈을 잃게 되자 캐디가 잠시 이성을 잃고 취한 행동이었다. 어처구니가 없어 웃고 넘어갔지만 중국인들이 얼마나 노름을 좋아하는지를 새삼 실감한 기회였다.

한번은 베이징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갈 때였다. 택시운전사가 잔뜩 얼굴을 찌푸린 채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느냐고?"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다. 그리고는 시속 120, 140킬로미터로 마구 달렸다. 아니,

이 녀석이 마약을 했나 싶어서 좌불안석이였다. 그런데 슬슬 달래며 말을 붙여보니 그 녀석이 화를 낸 이유가 아주 엉뚱했다. 공항에서 손님을 태울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운전사들과 카드노름판을 벌였다가 돈을 왕창 잃고는 엉뚱하게 손님인 나에게 신경질을 부린 것이였다.

베이징 시내에서 택시를 잡고 "공항으로 가자"고 하면 택시운전사들은 하나같이 반기는 표정을 짓는다. 처음엔 장거리를 뛰게 돼 좋아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일단 공항으로 가면 택시를 길게 세워놓고 보통 한 시간 이상씩 손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운전사들과 한 판의 짜릿한 카드판을 벌일 수 있으니 그걸 생각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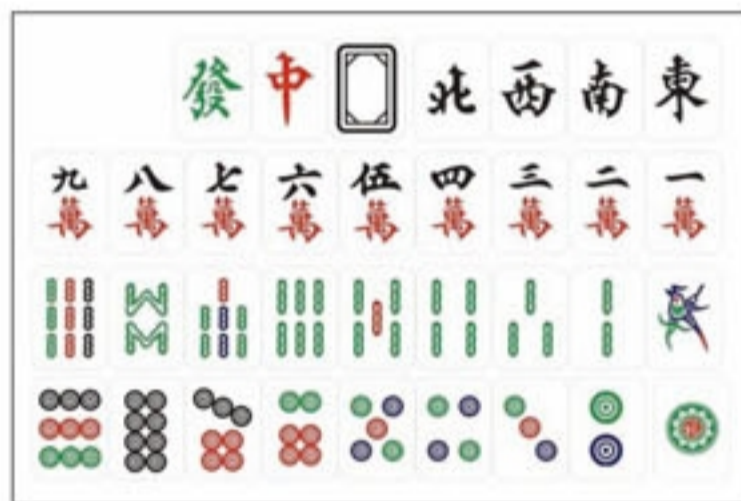
중국노인들, "노름해야 장수" 주장하며 열중

중국인들은 노름을 해서 돈을 잃을 때는 물론이고 노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자제력을 잃는다. 베이징특파원으로 상주할 때 겪은 이야기다. 특파원들이 공동인터뷰 등을 하는 경우 각자 운전사가 달린 차를 타고 같은 장소로 온다. 그런데 당초 서너 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취재가 사정이 바뀌어 금방 취재현장을 떠나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특파원들을 태우고 온 중국인 운전사들은 노골적으로 문을 팡 닫는 등 신경질을 부리거나 말뚱가 거칠어진다. 당초 서너 시간 걸릴 예정이었기에 대기실 같은 곳에서 다른 운전사들과 모여 느긋하게 카드노름을 벌일 요량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하고 회사로 일찍 돌아가자고 하니 화가 난 것이다.

노름이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체질화, 일상화 돼 있는지를 알려면 공원에 가보면 된다. 언제 어느 공원을 가든지 공원



마작에 열중하고 있는 중국인들. 중국 어디가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작의 패 모양

여기저기서 카드나 마작을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노름에 나이 성별이 없다. 특히 호호백발을 한 중국인 노인네들은 아침에 공원에 와서 먼저 기공체조로 몸을 푼 다음 곧장 노름에 몰두한다. 노인들은 "몸만 살아있으면 뭐 하나, 두뇌가 살아있어야지"라며 너나없이 돈을 걸고 포커나 마작에 열중하는 것이다. "노름하는 게 장수비결"이라는 말까지 한다니 정말 못 말리는 중국인들이다.

한국인들, "노름판 빛은 안 값아도 된다" 중국인들, "노름빛은 끝까지 값아야 하는 부채"

한국인도 중국인 못지않게 노름을 좋아하는 편이다. 그러나 차이점도 많다.

무엇보다 노름빛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다. 노름빛에 대해 한국에서는 "노름판에서 진 빛은 안 값아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노름빛에 비교적 구속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다르다. 노름빛은 끝까지 값아야 하는 공식 채무로 인식한다.

1994년에 상영된 장예모 감독, 공리 주연의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다. 1940년대 중국사회가 배경인 이 영화는 노름판에서 진 빛 때문에 살던 집을 노름꾼에게 넘



장예모 감독의 영화 '인생'의 포스터. 노름빛 때문에 패가망신한 한 가정사를 다루었다.

겨주고, 그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친구로부터 개명으로 받은 그림자 연극 도구를 짊어지고 여기저기를 떠도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름으로 하루아침에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에서는 여전하다.

중국인들은 노름에 관한 한 한국인들을 '하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중국음식점을 하다가 "빨리 빨리"라며 음식을 재촉하는 한국인들에게 질려 한국을 떠나 중국 본토에 와 식당을 하고 있는 한 화교를 알고 있다. 그가 언젠가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에 비해 포커 페이스에서 약하다. 한국인들은 얼마간의 돈을 따면 금방 얼굴색이 변한다. 한국인들은 또 판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돈은 판이 끝나 자리에서 일어설 때 자기 호주머니에 든 돈이 자기 돈이다. 판이 돌아가는 도중에는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도 판돈에 불과한 것인데 한국인들은 노름 중에 판 돈을 자기 돈으로 착각한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 / 한 아름다운 여인의 추억 ⑥

방황 그리고 재회... 그녀와의 '마지막 담판'

김 병 권

(15회, 미국 뉴저지주 놀우드 거주)

그녀에게서 절연장을 받고난 후 나의 생활은 음울했다. 마치 비를 맞고 추적거리는 풀이었다. 세월이 갑절이나 빨리 갔으면 하고 바랬다. 항상 무엇인가가 나를 묵직하게 억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녀가 꽤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사람을 믿어요"라며 다가 온 여인

당시 나는 별로 갈 곳도 없어서 학교 도서관에 자주 드나 들었는데 거기에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취직해 있는 L이라는 여자사서가 있었다. 1층 홀에는 대 여섯의 일간지가 진열되어 있어 나는 한 시간 정도 그 일간지들을 모두 속독하곤 했는데 그녀는 거기서 나와 자주 어울렸다. 그녀는 학교 직원이며 나는 학생신분이었지만 나를 친구처럼 여겨 나를 자주 찾아 주었다. 나이는 나보다 세살 어렸으며 상당히 미인이었다.

내가 생활에 찌들고, 불안에 떨고, T가 떠나버려 상심하고 있을 때 어느날 그녀는 나의 고뇌를 감지했음인지 "무슨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 며칠 나하고 교외로 여행이나 하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나는 사람을 믿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나 절대로 부르지 않았으며 그냥 일반 명사인 '사람'으로 종종 표현했다. 그녀는 노란 색깔의 옷을 자주 입었고 그럴 땐 하얀 스타킹을 신었다. 언젠간 부모의 유산 분배 과정에서 자기를 여자라고 매우 불리하게 책정하는 것을 보고 분개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네, 시간이 나면 그러지요..." 라고 나는 건성으로 대답해 놓았다.

그녀와 나는 친구 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애매한 사이였으나 커피 한잔 같이 해본 일이 없었다. 한 번씩 만나면 2, 30분간 일상적인 얘기만 나눌 뿐이었으나 나의 남루한 몸골에서 '아하 이 사람 제대하고 타관에서 고생까나 하고 있구나' 하고 연민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T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울분을 딴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보려는 짓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딱 신뢰하고 있는 눈치였다. 신뢰는 명예 이상으로 사람과의 계약이다. 나는 졸업 때까지 도서관 출입을 자제했고 어쩌다가 도서관에 가더라도 1층 홀을 급히 지나쳤다. 그것이 그녀의 신뢰에 보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귀국한 T와 다시 재회 "나는 평범한 여인"

그 새 T는 텍사스에서 1년을 보낸 뒤 귀국해서 전에 일했던 병원에서 일하면서 K대에 편입, 나날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다. T의 친구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 그런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김 선생님께, 지금 T가 귀국해서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옛날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끼리 이렇게 남처럼 지내니 보기가 참 딱합니다. 시간 나시면 이곳으로 편지를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는...'

이 전갈을 받고 나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친구 L이 미웠다. 왜 물어 놓은 불씨를 건드려 남의 가슴을 쭈시게 만드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T에게 품었던 싸늘한 시선과 원망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내 영혼을 전부 불살랐던 그녀가 돌아와 암전히 기다리고 있다니! 나는 편지를 써 보냈고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녀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 나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괴



일러스트 = 이철원(조선일보 기자)

로우면 괴로움을 당하는 보잘 것 없는 여인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그녀를 나무랄 수 있으며 소리를 지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그녀에게 사대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만나지 않았지만 다시 연결이 되었다. 나도 여러 방황을 끝내고 미아동에 입주 가정교사로 들어갔다.

"내가 저잣거리에 지렛꾼으로 나선다면...?"

이듬해 8월 나는 겨우 졸업을 했다. 졸업식장에는 가지 않았다. 심히 부끄러워서였다. 내가 대학에서 전공해서 안다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나는 세월에 분절을 해서 학사모를 도둑질한 작부가 아닌가.

졸업 직후 5백여명의 응시자 중에서 겨우 4명의 합격자를 뽑는 취직시험에서 나는 턱걸이합격을 했다. 그 때가 신입사원을 뽑는 시기가 지났던 즈음이어서 실력 있는 학생들은 재벌 계열사에 입사하고 난 후였기에 나는 시기의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

이제 그녀와의 마지막 담판이 남아 있었다. "만일에, ... 만약에... 내가 실직하거나,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저잣거리로 지렛꾼으로라도 나설 것도 같은데... 그 땐 후회하거나 나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예요? 지렛꾼도 사람인데..." 그녀의 답은 간단했다. 아니, 그 걸 말이라고 하느냐는 부였다. 나는 감격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정신이 똑바로 든 여성임에 틀림없었다. 이때까지 무수한 방황과 고뇌에 쌓여 허우적거리며 기다려온 보람을 느꼈다. 나는 뜨거운 그 무엇을 가슴 속에서 느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에게,

이틀 전 수요일에 진주 간호대학 강의 길에 지리산에 들렀는데 이제 막 단풍이 드는 경치가 참 좋았어요. 진주 가는 길에 함안이 나왔는데 대구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몸 건강하시고 유진, 앤, 유빈, 어머니 모두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 드림'

지난 해 안식년을 이용해 한국으로 나가 3개월간 특강을 했던 아내가 한국에서 보낸 엽서다. 아내에게서 육필 편지를 받아 본 것이 언제였던가. 아마도 37여 년 전 '국군 아저씨에게'로 시작되는 위문편지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 오랜만에 받아본 아내의 육필편지가 나를 지난날의 추억에 빠져들게 했다.

에필로그

늘 가까이 생활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 집니다. 그러나 켜켜이 쌓여있는 삶의 뒀안길을 자세히 보면 사랑과 미움, 고마움과 괴로움이 빼곡이 쌓여 있음을 보고 놀랍니다. 버거운 생의 지게를 지고 비탈길을 같이 걸으며 나는 여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는 불현듯 같이 동행해온 한 촌(村)여인의 이야기를 마음뭉쳐 풀어내어 보려고 붓을 들었습니다. 4, 50년 전의 기억을 회상하기에는 혼돈의 벽에 더러 부딪쳤습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독자들의 경험이 저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따뜻한 눈길로 아내를 보아 준다면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가족은 화롯불과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굿마당 춤을 너그럽게 읽어 주신 선후배 동문들께 감사드리면서... <끝>

예고 - 다음 호부터 천금성 동문의 '바다로 간 농부' 연재

남기고 싶은 이야기 두 번째 시리즈로 천금성 동문(14회)의 '바다로 간 농부'가 다음 호부터 연재됩니다.

천 동문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참치잡이 원양어선 선장이 돼 10여년 간 오대양을 누빈 특이한 경력을 가진 동문입니다. 당시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단편소설 '영해발부

근'이 196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래 그는 수십 편의 해양소설을 발표, 해양작가로서 자리를 굳혔습니다.

천 동문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 황파(荒波)가 넘실대는 참치잡이 어로현장으로 독자 여러분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다시 보는 부산 ⑭ / 서면로터리

지상보다 지하가 더 화려하고 붐비는 곳

글/사진 김형운 (18회, 김형운편집회사 대표)

아침 등굣길에 마셨던 막소주 한 잔의 추억

대학에 다니던 1960년대 후반, 나는 학교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아침이면 입주 가정교사로 있던 가야동에 서면로터리까지 걸어 나왔다.

그 시절 서면로터리 언저리에 내가 애용하던 대폿집이 있었다. 나는 그 집에 저녁보다는 주로 아침에 들렀다. 이른 시간임에도 그곳에는 언제나 술꾼들이 있었다. 나도 그 틈에 끼어 잔소주를 주문했다. '고뿌'라고 부르던, 지금의 소주잔보다 높이가 두 배쯤 되는 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주었다. 한 되 들이 몇병 소주였다. 병에는 상표가 붙어 있지 않았다. 그런 소주를 '막소주'라 불렀다. 안주는 늘 양념두부 한 접이었다. 그 집에는 그것이 안주의 전부였다고 기억된다.

왜 그때 나는 아침부터 소주를 마셨을까? 스스로 쓰린 속을 달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런 행동이 왠지 남다르고 멋있게 여겨졌던 것 같다. 막소주 한 잔과 두부 한 점을 뱃속에 넣고 나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서면에서는 버스가 늘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했고, 심하게 붐볐다. 전차가 사라진 1968년 이후로 더 붐비게 되었다.

한 군데 다 모인 보청기상점들... 진기한 풍경

'서면'은 부산이 동래부에 속했을 때의 지명이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부산에 지금 '서면'은 없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서면이지?' 하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부산 사람들은 대체로 서면로터리와 그 주변 일대, 그러니까 부전동과 전포동 일대를 서면이라고 부른다.

유럽에는 네거리에서 로터리를 자주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이 로터리다. 그래서 그런지 서면로터리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은근히 자부심을 심어준다. 서면로터리는 나라 안의 로터리 중에 가장 큰 편에 속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에서 하루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교차로로 알려져 있다.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다섯 개 차도가 서면로터리에서 교차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흔히 그렇듯이 로터리 둘레에는 은행과 투자회사 같은 금융기관이 많다. 큰 빌딩들은 모두 금융기관 간판을 달고 있다. 그것은 부산에서 가장 변화한 도심인 서면의 품격에 어울리는 풍경이다. 30년 전쯤에는 빵집도 있었고 다방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큰 건물 뒤편으로 숨어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옛 풍경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알고 보면 서면로터리 둘레에는 금융기관 못지않게 옛날부터 보청기 상점이 많았다. 독일보청기, 스타키보청기, 세기보청기, 한미보청기, 씨티보청기, 가나안보청기, 한국보청기, 벨론보청기... 나라 안팎의 보청기 상표들이 한 군데 다 모여 있다. 흔치 않게 이곳은 세계 보청기들이 매일 소리 없이 격투기를 벌이는 원형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자식들이 귀가 고장 난 애비를 위해 이곳을 방문할 날도 있을까? 그럴 필요가 영원히 없다면 좋겠지만 필요가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도 서글픈 일이 될 것 같다.

로터리 한가운데 있던 부산탑, 이젠 모형으로만

부산시는 로터리 둘레에 소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 작은 정원들을 가꾸었다. 밤낮 없이 자동차들만 웅웅거리는 공간에서 이것들이 위로가 된다. 그 중 한 군데, 전포동 쪽 지하철 4번 출구 가까이의 소나무 그늘에서 한 무리 장년들이 가운데 놓인 장기관에 열중해 있다. 이 분주한 곳에 웬 장기관? 사진기를 들이대니 저리 가라며 눈을 부라리는 사람이 있다. 박포장기?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이니 끼어들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좀 험악한 듯 보여 면발치에 머물렀다.



서면로터리 주변의 모습. 이곳 지상에서는 종일 자동차들만 보아야 하지만 지하에서는 온갖 상점들로 가득 차 있고 종일 사람들로 붐빈다.

박포장기판 가까이에 부산탑 모형이 서 있어 사진기에 담았다. 서면로터리는 1957년에 만들어졌고, 부산탑은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한 것을 기려 1963년 12월에 로터리 한가운데 세워졌다. 그랬다가 1호선 지하철이 건설되던 1981년 7월에 철거되었고, 오늘에는 로터리 한 구석에 작은 모형으로 남았다.

지하 1km에 걸쳐 펼쳐진 화려한 세계

서면로터리 주변에서 차도를 건너려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하도로 내려갔다 다시 계단을 이용해서 건너편 지상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거쳐야 한다. 말하자면 로터리 가까이에는 지상 보행로가 없다. 이것은 지하도를 바로 곁에 두고도 지상 보행로를 이용하게 해놓은 서울의 광화문 네거리와 대비되는 풍경이다. 보행권 같은 개념은 여기에 없다. '사람들이 서면까지 왔다가 이곳의 화려한 지하 세계를 못 보고 지나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아마도 부산의 관리들이 이런 배려를 한 것 같다.

부산의 네 개 지하철 중에서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서면역은 전국의 지하철 역 중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으로 꼽힌다. 서면역에는 열다섯 개의 출입구가 있다. 맨 북쪽의 15번 출입구에서 남쪽 끝의 1번 출입구까지 대충 1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거리이다. 그 거리만큼 남북으로 지하상가가 뻗어 있다. 또 동서로도 뻗어 있다. 규모에서 서울 을지로나 영등포의 지하상가에 뒤지지 않는다.

롯데백화점과 연결... "가장 붐비는 지하도"

서면 지하상가가 처음 생긴 것은 1982년의 일이라고 한다. 내가 서울에서 한창 월급쟁이로 뛰어나다니던 시절이다. 그때부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하세계가 해를 거듭하며 점차 더 커진 모양이다. 오늘처럼 화려한 모습을 갖춘 것은 1995년 롯데백화점이 생긴 다음의 일로 보인다.

서면 롯데백화점은 전통의 명문 부산상고를 당감동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2012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은 하루 이용자가 2만9천 명 이상으로, 전국 버스 정류장 중에서 가장 이용 인구가 많은 곳으로 발표되었다. 이곳 지하도에서도 롯데백화점으로 들어



로터리 지상의 한쪽편에 꾸며진 소공원. 부산탑 모형이 서있고 그 주변 여기저기서 박포장기판이 벌어진다.



롯데백화점 버스정거장 앞. 전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버스정거장이다.

가는 통로가 있다. 오후가 되자 평일인데도 그 쪽으로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렸다.

지상의 로터리에서는 종일 자동차들만 보아야 하지만 지하에서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작지 않다. 노인부터 청소년들까지 골고루 섞여서 오고간다. 서점도 있고 휴대전화 가게도 있고 커피숍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옷가게다. 예쁜 여성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이다. 서면에 오면 꼭 이 지하세계에 들를 것을 권한다.

김성언 동문의 漢詩 산책 ③



김성언

(24회, 동아대 교수, 한국한시학회 회장)



嫌闇并休詩

진정한 시인은

세상 이치를 다 깨달았다는 뜻이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자들을

협오해 붓을 끊는다



시끄러운 소리 싫어 시도 끊었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인이거나 소설가라면 마치 그가 자신들과는 다른 별세계에 사는 신비한 존재인 양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한 수 접어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롭난 문인들 중에는 알고 보면 시정의 갑남을녀(甲男乙女)나 장삼이사(張三李四)에 못지않은 속물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위선적인 인물들이 적지 않다.

고려의 대문호 이규보는 당대의 권력자인 최씨 정권하에서 무인들에게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아부를 일삼았다. 조선 삼대 시가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강 정철은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인의 우두머리로 잔혹하게 정적을 짓밟고 고문했던 인물이었다. 사정은 서양도 마찬가지. 예즈라 파운드는 파시스트였고, 바이런은 천하의 바람둥이였으며, 도스토예프스키는 헤어 나오지 못하는 도박꾼이었고, 오스카 와일드는 사기꾼에 동성애자였다.

흔히 죽림칠현(竹林七賢)이라면 더러운 티끌세상을 멀리 한 채 자연을 벗 삼아 고담준론을 일삼고 술과 시와 거문고로 소일하는 신선과도 같은 현인들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술만 있다하면 심지어 군대 취사장까지 찾아가 입대를 자원했던 알콜 중독자들도 있었다. 특히 왕용(王

戎)같은 자는 어찌나 인색했는지 자기 집에서 나는 맛난 오얏을 팔아 재미를 톡톡히 보았는데 누가 그 씨를 심을까 우려한 나머지 내다파는 오얏 열매는 모조리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다(鑽核)고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인들이라면 대부분 음풍농월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맛을 아는 자, 혹은 할 말 많은 자신들을 대신해 시원하게 사자후를 토해주는 자로 착각한다. 이는 시인을 자처하는 자들이 대개 알듯 말듯 한 현학적인 비유 따위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이다.

한시, 특히 금체시(今體詩)하면 으레 이백과 두보를 최고로 치며, 이백을 시선(詩仙), 두보를 시성(詩聖)이라 경칭한다. 그 중에서도 두보는 리얼리티와 애국애민의 시인으로 존경받아 왔으며, 조선 성종 같은 호문지주(好文之主)는 <두시언해>의 편찬을 국가적 사업으로 삼을 만큼 그를 존송해마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중국 비평계의 거장 곽말약(郭沫若)은 이백과 두보의 시구 하나하나를 세밀히 분석한 다음, 두보를 "영락한 채 죽어간 자의 전형" 혹은 "출세에 연연하는 속물"로 평가하며 이백도 약간 개혁적이긴 하나 "현실에서 떠도는 분속파(憤俗派)에 지나지 않는다"고 통렬히 비판한다.

고려와 조선 시대의 한시 중에는 유독 은

일시(隱逸詩)가 눈에 많이 밟힌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은일을 가장한 사대부들의 위선적 멋내기엔 지나지 않는다.

진실로 은둔(隱遁)을 택한 사람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가 아니라 국제시장 뒷골목에서 장사치들과 더불어 싸움질하고 꺾꺾거리며 남은 생을 영위한다. "내 산 속에서 세상을 깔보고 고고하게 삼네."하는 식의 매명(賣名)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시인은 힐링 운위하며 세상 이치를 다 깨달았다는 듯이 요설(饒舌)로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자들을 혐오해 붓을 끊는다. 연산군 때 무오사화에 걸려 낙향했다가 아예 세상에서 종적을 감추어버린 허암(虛庵) 정희량(鄭希良)의 '무언(無言)'은 그래서 더욱 값지다.

예전엔 비바람에 놀랐었지만,
風雨驚前日,
지금은 문명세상 등지었다오.
文明負此時.
지팡이 하나 짚고 우주 떠다니,
孤筇遊宇宙,
시끄러운 소리 싫어 시도 끊었네.
嫌闇并休詩.

秃筆雜記

봄비

봄날씨가 아주 알겠다. 이곳 남녀엔 벚꽃은 피었다 진지 오래고 며칠 전에 보니 라이락꽃이 한창이다. 그런데 꽃 피는 것만 보고 "아, 봄이구나" 했다가 그 다음날 비 뿌리고 바람 불어 "어, 춥다" 소리가 절로 나오게 날씨가 변덕을 부린다.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구나(春來不似春)'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옛사람들은 이때 쫄 내리는 봄비를 매우(梅雨)라고 했다. 매화꽃 지고 나서 매실(梅實)이 익어 갈 즈음에 내리는 비라고 해서 불인 이름이다. 봄비를 노래한 옛 시조로는 매창(梅窓)의 시조가 유명하다. "이화우(梨花雨) 훗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날 /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쾌라."

매창 이계생(李葵生, 1573~1610)은 전북 부안의 이름난 기생으로 촌은(村隱) 유희경(劉希慶)의 애인이었다. 촌은(村隱)이 서울로 돌아간 뒤 소식이 없자 계생은 거문고와 시로 외로움을 달래며 이 이화우(梨花雨)시조를 짓고 절개를 지켰다고 한다. 시조에 나오는 이화우(梨花雨)는 매우(梅雨)처럼 진짜 비가 아니라 '바람에 휘날려 지는 배꽃'을 뜻한다. 하얀 배꽃이 흩날리는 날의 이별! 그 정경이 상상만으로도 눈물 겹다.

유희경은 일년이나 지나서야 인편

으로 간단한 편지를 계생에게 보낸다. 편지 말미에 다음과 같은 시를 첨부했다. "한번 헤어진 예쁜 그대 아득히 멀어(一別佳人隔楚雲) / 나그네는 시름에 잠 못 이루네(客中心緒轉紛紛) / 청조가 아니오니 소식조차 끊기고(靑鳥不來音信斷) / 오동잎에 찬비소리 차마 못 들것네(梧桐涼雨不堪聞)" 여기서도 비 타령이다. 오동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는 마음을 흔들여 놓는다. 하여튼 이들 남녀는 이렇게 비 오면 비 온다고, 꽃 피면 꽃 핀다고 서로를 밤낮으로 그리워한다.

둘의 재회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이뤄진다. 유희경은 계생을 서울로 데리고 가 3년 가까이 함께 살았으나 계생은 병이 들어 고향인 부안으로 내려오고 만다. 시름시름 앓던 계생은 배꽃 피는 어느 봄날 숨을 거둔다. 나이 서른여덟이던 때였다. 유희경은 부음을 듣고 부안으로 달려와 "아리따운 혼은 홀연히 흰구름 타고 가버렸구나(香魂忽駕白雲去) / 하늘은 푸르고 아득하여 돌아올 길 바이 없네(碧落微茫歸路絕)"라고 추모시를 읊으며 통곡했다고 한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전북 부안을 봉두리 공동묘지에 있는 계생의 무덤사진을 본 적이 있다. '명원 이매창지묘(名媛李梅窓之墓)'라고 새긴 비석의 글씨가 뚜렷했다. 내 언제 부안을 지나갈 기회가 으면 계생의 무덤에 들려 소주 한잔 뿌려 줄 생각이다. <바우>

■ 포토갤러리



19회 경부당구대회, 환대해준 부산친구들에게 감사

지난 4월 12일 부산 향촌당구장에서 있었던 19회 동기들의 '경부합동당구대회' 때 찍은 기념사진이다.

이 날 대회는 초청팀(부산)과 방문팀(서울)에서 각 6명씩의 선수가 출전, 3개조로 나누어 열전을 벌였다. 부산에서는 문무영, 박상식, 남진현, 성낙출, 배무삼, 한원주가 대표선수로 나왔고 서울에서 내려간 선수는 임유홍, 석용태, 최홍표, 김인선, 김욱, 조순제였다.

결과는? 서울팀이 무려 8대1로 크게 지고 말았다. 부산동기들 밥 먹고 당구만 치는지, 독하게 잘 치더라.

대회 후 자갈치 총무회집으로 이동, 이상용 서울동기회장과 박갑진 부산동기회장 등 여러 동기들이 합석한 가운데 푸짐한 해산물 안주로 술잔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 이어 부산동기들에 이끌려 육이네 고래고기집, 중앙동의 부산포 막걸리집 등지를 돌아다니며 자정이 되도록 기분 좋게 마셨다. 이튿날에는 태종대 남향대교 송도를 구경한 뒤 다시 자갈치에 들려 품장어구이로 저녁까지 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1박2일 동안 서울팀을 환대해준 부산동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석용태>

◇ 이 '포토 갤러리'에 재미있는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어 드립니다. 보낼 곳 = yongmanews@gmail.com

용마들의 사랑방 - 기별 인터넷게시판 탐방

如是我聞, 그 아름답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준성 (30회)

유교(儒敎)의 기본 경전인 사서삼경은 사서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과 삼경 《시경(詩經)》《서경(書經)》《주역(周易)》을 이른다.

여기서 책 보다는 높은 정신세계를 담은 책이 經이다. 하여 시(시경)나 역사(서경)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기본종 기본이니 충실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유교 최고 경전인 주역은 이 세상 마지막 가는 날까지 공부하더라도 끝이 없는 유교 정신세계의 꽃이다.

공자님도 마지막까지 천착하며 공부한 책이 역경인 주역이다. <사기(史記)>의 <공자세가(孔子世家)>에 “孔子晚而喜易 讀易… 韋編三絶(공자가 늦게 역을 좋아하여 역을 읽어… 가죽끈이 세 번 끊어졌다).” 이라고 한다. 공자님 같은 성인도 주역 연구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열정을 다했다.

이 세상 그 많은 책(書) 중에 經(經)의 반열에 오른 책은 유교에서는 역경인 주역, 불교에서는 불경, 기독교에서는 바이블인 성경, 이슬람 성경인 코란, 도교에서는 노자의 도덕경이다. 결국 최고 으뜸(宗) 가르침(敎), 즉 종교의 경지에 이른 책이라야 經의 반열에 오른다.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책이 나왔지만 200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남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읽으며 감동하는 책은 고전 중 고전인 經에 해당하는 책이다.

나무 한그루 베어 아깝지 않은 책 '무소유'를 쓰신 법정스님께서도 가시면서 자신이 쓰신 모든 책을 거두게 한 것도 당신의 책이 經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걱정하여 그리하신 것이 아닌가 한다.

세상에는 베스트셀러, 스테디 셀러, 클래식인 고전, 잡서 등 책들이 너무 너무 많다. 책 쓰는 일이 먹고사는 생업(生業)인 사람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먹고사는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은 정말 내 책이 나무 한그루 베어 아깝지 않은 세상사람들에게 유익한 자양분이 가득 담긴 책인가 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했으면 한다.

비교적 작은 지면에 높은 정신세계를 담

은 시인의 시집에서도 시 한편이 세상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다. 시인들은 시 한편이 아니라 다만 한 귀절이라도 세상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살아 숨 쉬는 글귀가 되도록 밤을 새워 시어와 분투한다. 시가 시경에서와 같이 經에 이른 이유도 시어 하나 하나가 그렇게 노력하여 완성한 인간정신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처럼 3월을 맞아 기본인 시심(詩心)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고전의 세계로 나아가야겠다.

여시아문(如是我聞), 최고의 정신세계를 담은 책 經(經)을 쓰는 사람들의 겸손한 마음을 담은 글귀이다. 여시는 '이와 같이', 아문은 '내가 들었다'의 뜻이다. 거의 모든 불교경전 첫머리는 '여시아문'으로 출발한다. 금강경 등 불교경전을 결집한 아난존자는 이야기한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라고 하고, 또 유교에서는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라고 하나 그는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고'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붓다가 이야기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들은 바가 전부이다. 붓다가 말한 것은 오직 그분만이 안다. 그 분이 의미한 바는 그분만이 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들은 바가 전부이다.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 분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미하셨을지도 모른다. 내가 몇개의 단어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또는 내가 무의식중에 임의대로 몇 개의 단어를 슬쩍 끼워 넣었을지도 모른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금강경' 중에서)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 겸손한 마음인가?

하여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쓴 글을 대하며 읽을 때는 아난존자의 이 마음을 잊지 말기를 다짐해본다.

이 글은 30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옮겨 온 것입니다. 공개된 게시판에 실린 글이어서 필자들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
다. 양해 바랍니다. <편집자>

용마 지상 갤러리



Variation #1 / 오수환 Oil on canvas, 130×97cm, 2010

허공에 붓 휘두른 듯... 유화와 필묵의 경계 오가

오수환 동문(18회)의 부친은 이름난 서예가로 경남고에서 서예를 가르치기도 했던 분이다. 서예가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서예를 접해서 인지 그의 그림은 유화와 필묵의 경계를 오간다. 그의 작품들은 "마치 허공을 향해 붓을 마음대로 휘두른 것 같다"는 말을 듣는다. 어떤 이는 "오수환의 그림은 깨끗한 절 마당에다 빗자루질 하는 스님을 연상케 한다"고 말한다.

"이게 그림이야?"라고 말하는 이에게 그는 "바로 그 지점, 이것도 그림이야? 라는 질문부터 출발한다"며 "내 작품은 물질화되고 이데올로기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중성적인 장소, 화해의 장소"라고 말한다. 그는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은 언어 이전 또는 그림 자체 이전의 어떤 상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오수환 = 서울대 미술대학(1969)을 졸업하고 서울·도쿄·스톡홀름·보스턴 등지에서 수십 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국립현대미술관,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아키라 이케다 재단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여대 미술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시산책

얼굴반찬

공 광 규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 넣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공광규 = 1960년 4월3일 서울 돈암동 출생. 충남 청양 성장. 동국대 국문과,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졸업. 1986년 월간 <동서문학> 신인문학상으로 등단 시집 『대학일기』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지독한 불륜』 『소주병』 『말뚝 한 덩이』 등

영터리 농사꾼의 전원일기 ③

원두막 그늘에서 먹는 고등어조림 상추쌈 맛에...



김재환
(18회, 전 한림대 영문과 교수)

풀과의 전쟁은 그야말로 악전고투였다. 생전 노동이라고는 모르던 내 몸은 뜻밖의 노역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다. 좋아하는 낚시도 못 가고 주말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후회가 밀려 왔다. 하지만 작물들이 파릇파릇 싹을 틔워서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은 그런 후회를 상쇄하고도 남을만한 것이었다. 농사 경력 십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새로 돌아오는 싹은 항상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씨를 뿌려 싹이 안 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한 것은 하루 종일 일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만큼 지쳐 있어도, 자고 나면 거짓말처럼 피로가 풀린다는 사실이다. 하기가 농부들이 평생 동안 그 힘든 노역을 견뎌 낼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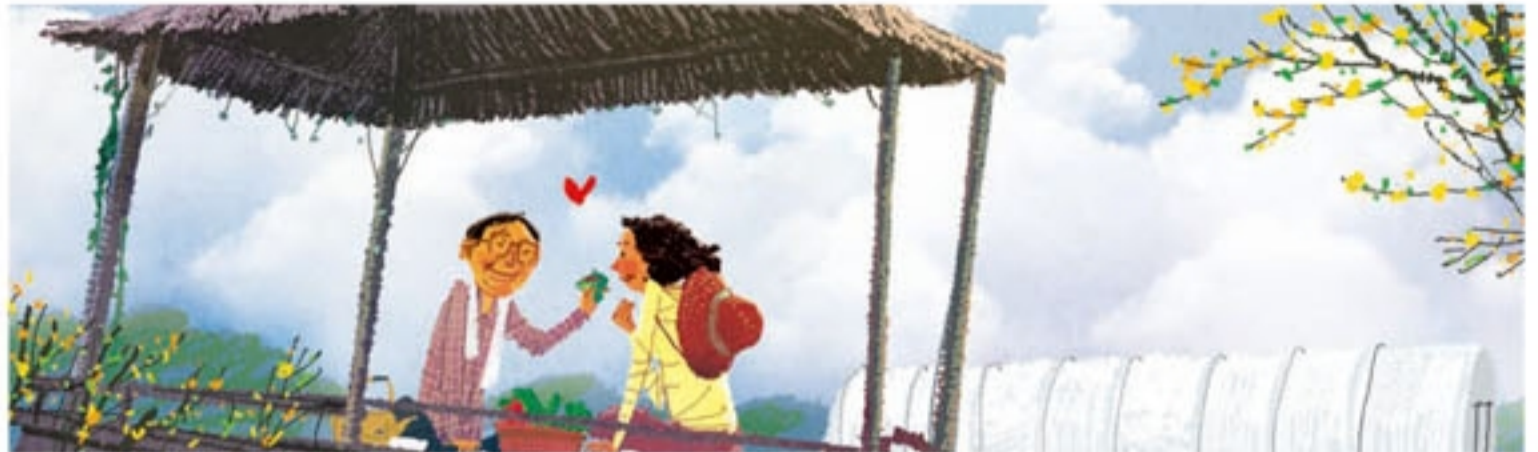
'텃밭농사의 꽃'인 고추농사는 하우스부터 지어야

아무튼 나의 그 서툰 농장이 그런대로 꼴을 갖추기 시작하자, 은근히 한 가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텃밭농사의 꽃'이라고 하는 고추를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하루는 영감님에게 고추농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고추 하려면 하우스부터 지어야지." 하고 영감님이 대답했다.

고추에는 병충해가 많이 끊는데, 특히 탄저병(炭疽病)을 피하려면 비닐하우스의 비가림이 필수라는 것이었다. 차차 알게 된 사실이지만, 노지(露地)에서 고추를 키울 경우에는 비가 온 후에 반드시 농약을 쳐야 한다. 빗방울이 땅에 튀기면 땅속에 숨어 있던 탄저균이 비산(飛散)하는 빗방울을 타고 고추에 옮겨 붙기 때문이다. 후일 나는 고추농사를 크게 짓는 한 농부가 "올해는 고추에 약을 열한 번밖에 안 썼어"라고 자랑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따라서 고추를 기르려면 비닐하우스가 있어야겠는데, 그건 또 어떻게 짓는단 말인가? 하지만 이처럼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막막할 경우, 내가 애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전화번호부 책을 뒤져서 시공업체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알아낸 시공업체들에 나는 전화를 걸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은, 것처럼 작은 비닐하우스 한 동은 취급을 안 한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한 번에 수백 동씩 대량으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일러스트 = 이철원(조선일보 기자)

비닐하우스는 위대한 발명품... 세우는 기술에 탄성

내가 밭을 샀다는 소문이 교내에 돌았던 모양이다. 하루는 교수식당에서 식품영양학과 정교수가 나의 농사일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물어왔다. 나는 그가 만천리에 7백 평쯤 땅을 사서 그 일부에 농사를 짓고 있고, 비닐하우스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우리 과 학생이 지어줬어요."

"학생이? 학생이 어떻게?"

"아르바이트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는 학생이에요. 여름방학 때 비닐하우스 아르바이트 해서 1년 치 등록금을 번답니다."

"그러면 어디 나도 한 번 부탁해 봅시다."

이리하여 정교수의 소개로 그 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 학생과 함께 농협에 가서 비닐하우스 지을 때 필요한 부속들을 구입했다. 그런데 하우스파이프의 경우, 농협에서는 팔기만 할 뿐, 휘어주지도 않고 실어다 주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하우스파이프 취급하는 업체들을 수소문하고 다녔다. 다행히도 그 중 한 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8m 짜리 하우스파이프를 휘어서 큰 트럭에 실어 우리 밭까지 날라다 주었다.

비닐하우스는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었다. 아마도 것처럼 저렴한 비용에 이처럼 유용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달리 없을 것이다. 그 학생이 비닐하우스를 조립해 나가는 작업을 지켜보는 내 입에서 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내가 가장 궁금해 한 것은 "가로 파이프와 세로 파이프를 어떻게 덮어씌운 비닐을 어떻게 팽팽히 고정시키는가?"였다. 파이프를 엮는 부속은 조리게였고, 비닐을 고정시키는 부속은 패드막대와 패드스프링이었다. 둘 다 탄성(彈性)의 강도가 매우 높은, 나처럼 악력(握力)이 약한 사람은 다루기 힘든 쇠스프링이었는데, 그 학생이 1차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그것

들을 빠른 속도로 채워나가는 솜씨는 가히 예술이었다. 비닐하우스가 완성되고 나자 나는 그 학생에게 원래 약속한 품삯에다 장학금조로 얼마를 더 얹어 주었다.

비닐하우스에 이어 채마밭 옆에 철골 원두막

비닐하우스를 짓고 나니, 이번에는 원두막 차례였다. 날씨가 점점 더워 오는데, 작업하는 중간에 힘이 들면 쉬기도 하고, 앉아서 점심도 먹고, 또 농기구를 넣어들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무로 된, 정자 같은 멋진 원두막을 짓고 싶었지만, 건축비를 알아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하여 칠물로 된 원두막을 짓기로 했다. 이번에도 전화번호부 책을 뒤져서 '영준공업사'라는 데를 찾아냈다. 주인은 선뜻 가로 세로 각 2.5m 정도의 원두막을 85만원에 지어주겠다고 했다. 다음 날 주인과 직공 두 사람이 와서 한나절 산소 용접을 한 끝에, 마침내 녹색 천막을 친 아담한 철골 원두막이 탄생하게 되었다.

원두막이 생기니 무엇보다도 점심을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다. 마침 채마밭에서 상추 등속의 푸성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밥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했고, 쌈 속에 넣을 된장과 반찬은 집에서 싸 가지고 갔다. 상추쌈에는 삼겹살 구운 것이 제격이라지만, 우리는 싱싱한 고등어 냄비에서 자작자작 조리된 것을 쌈 속에 넣어 먹었다. 아침나절 땀 흘려 일하고 한껏 허기가 저었을 때 원두막 그늘에서 먹는 고등어조림 상추쌈은, 그 후 우리로 하여금 영터리 농사일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필자 김재환 동문은..

서울대 문리대 영문과(64학번) 졸업. 한림대 영문과 교수 역임. 13년 전에 텃밭농사에 입문했고 2005년부터는 춘천 근교(서면 월송리)에 집을 짓고 '주경야독'의 시골생활을 하고 있다. 이메일 : jwkim@hallym.ac.kr <편집자>

불스해운항공(주)

- 화물복합운송 주선업 (해상, 항공, 육상 & 보관)
- 경쟁력있는 운임과 특화된 서비스 제공
- 동문들의 소중한 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



대표이사 **이창용** (44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37-16 동아제일B/D 1203호
TEL : (051) 463-0921~2 FAX : (051) 463-0920
M,P : 010-3587-7725 E-mail : bulls6579@kornet.net

- ▶ 주요 운송품목 : 기계, 장비, 자동차부품 외
- ▶ 전문 운송조건 : DDP, EXW, FCA 외
- ▶ 강세 운송지역 : 북미, 캐나다, 중국, 유럽, 일본 외

한형조 동문의 古典閑談 ⑦

아, 황룡사 그리고 선덕여왕



한형조

(31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여왕께서는 왜 굳이 ‘도리천’에 묻어 달라 하셨을까... 나는 알았다. 여왕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온 누리에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를 염원했던 것이다”

선덕여왕(재위 632~647)은 주변 마초들의 필박을 심하게 받았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여왕이 통치를 하더니,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내뱉었다. 당태종은 그림 하나를 보냈다. 여왕은 그림 속 모란에 벌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향기’가 없는 꽃임을 알았고, 자신을 아유한 것임을 알아챘다.

<삼국유사>는 여왕의 통찰 혹은 예지력(知幾三事)을 더 전하고 있다. 어느 날 왕경에 개구리가 시끄럽게 울자(예전 전쟁은 소리로 사기를 올리고, 적을 위협했다), 건천의 여근곡(女根谷)에 적병이 숨어든 것을 알고 군사를 보내 거기에 매복해있던 백제군 5백명을 모두 죽였다. “개구리처럼 남성들(?)이 불끈 성을 내 보이자 여성의 몸 안에서 그저 죽어 나올 뿐이다.” 마초주의를 통쾌하게 비웃는 여왕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럼에도 서해의 창구 당항성은 함락 직전까지 갔고, 합천의 대야성은 무너져 군주 품석이 전사했다. 당 태종은 이 난국을 “여왕이 감당할 수 없으니, 당 황족 하나를 뽑아주겠다”는 모욕적 제안을 했다. 신라 왕실이 술렁였고, 내란의 조짐이 있었다.

여왕은 호국의 염을 담아 황룡사에 9층탑을 세웠다.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어, 국조(國祚)가 불안하니, 부처님의 위력을 빌립시다.”라고 한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철근 콘크리트도 없이 목재로 세운 9층탑. 사방 22미터, 높이는 80미터에 달했다. 별판에 선 20층짜리 아파트 하나를 연상하면 되겠다. 김춘추의 아버지 용수가 공사를 맡았고, 설계와 기술은 선진 백제의 아버지(阿非知)에 의뢰했다. 아버지는 고국 백제가 망하는 꿈을 꾸고는 멈칫 주저했다. 그러자 “땅이 진동하더니 어둠 속에서 노승과 장사 하나가 금당문을 나와 기둥을 세우고 사라졌다.” 지금 기술로는 목재로는 3층 이상을 올릴 수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어디서 4톤 트럭으로 3천대분의 목재를 실어올 수 있겠는가. 선덕 여왕대의 경제력과 문화적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장중한 탑은 서라벌의 랜드마크로 주변나라들의 두려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고구려도 빼앗긴 땅을 생각하며 울컥 길을 잡았다가 멈칫거렸다고 한다. 탑은 백년은 멀정했고, 가끔 벼락을 맞아 보수했다는데, 몽골의 침입 때인 1238년, 아, 잔인한 놈들, 절과 장육존상과 더불어 타버렸다.

여왕은 자신이 죽을 날도 미리 알았다고 한다. “내가 죽거든 도리천(勿利天)에 장사지내다오!” 신하들은 당황했다. “어디를 말씀하시오나이까?” 아마도 여왕은 웃으며 말했다. “남산(狼山) 아래가 그곳이다.” 30여년 후, 문무왕은 남산의 발치 아래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지어 여왕의 예언을 완성시켜 주었다. 불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육계(欲界)의 33천(天), 그 서른 세 겹의 하늘에서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는 것을 귀담해 듣다.

나는 문득 궁금했다. 여왕께서는 왜 굳이 ‘도리천’에 묻어 달라 하셨을까... 얼마 전, 원효의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을 읽다가 그 비밀을 풀었다. 도리천은 제석천(帝釋天)이 거하는 곳이다. “그분은 그곳에서 말성군(阿修羅)의 군대를 ‘금강’ 즉 다이아몬드의 창검으로 물리치신다.” 나는 알았다. 여왕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사방 9층의 전쟁을 잠재우고, 온 누리에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를 염원했다. 나중 문무왕(재위 661~681)도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는 용이 되고 싶다”고 바다 한 가운데 자신을 수장시키지 않았던가. 변방 구석의 신라가 천하를 통일한 비밀이 여기 있다.

내가 한 때 근무했던 동의의료원은 당시 양한방이 협진하는 병원으로 소위 ‘중풍(뇌졸중)’ 환자가 많았다. 그곳 신경외과에서 8년간 근무한 뒤 함께 근무하던 정재익 후배와 들어서 동의의료원 부근에서 ‘김&정신경외과의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내가 개원하자 그 동안 동의의료원에서 내가 봤던 많은 환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병원으로 오게 돼 외래환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등 그런대로 병원운영이 잘 됐다. 개원 후 약 2년이 지난 어느 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무슨 일 때문인지도 모른 채 서둘러 갔더니 나를 포함하여 여섯 명의 원장님들이 불려와 있었다. 담당직원은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하여 30분가량 브리핑을 하고는 원장들을 한명 씩 따로 불렀는데, 그 때서야 내가 왜 불려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동의의료원에서 서부터 봤던 환자들에게 동의의료원에서 했던 그대로 약을 처방한 것이 문제였다.

뇌졸중 환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 기본 병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약과 함께 뇌졸중에 대한 약을 같이 처방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에 비해서 처방하는 약 종류도 많고

龍馬 醫窓

싼 약만 처방하라니...

김법영

(33회, 김&정 해운대병원 원장)



장기적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처방일도 길다. 따라서 허리, 관절 등 통증만 보는 신경외과의원보다는 환자 당 약값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심평원은 이것을 문제 삼아 “처방하는 약 종류를 줄이든지, 아니면 싼 카피약(특허기간이 지나 중소기업 회사에서 같은 성분으로 복사하여 만든 약)을 처방하라”고 노골적으로 종용했다. 아니, 환자는 똑 같은데 동의의료원에서 했던 처방과 다르게 처방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알고 보니 심평원은 전국적으로 병원은 병원끼리, 의원은 의원끼리 처방되는 약값의 평균을 내고 그 평균치보다 자기

들이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처방약값이 올라가는 의원들을 불러 이런 식으로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항의했다. “환자의 처방약값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약국에게 좋을지는 몰라도 진료 보는 의사가 득 볼 일이 없다. 만약 의원에서는 싼 약만 처방하고 종합병원에서는 비싼 약을 처방한다면 환자들이 의원을 찾겠느냐?”라고. 그래도 심평원측은 “우리는 정해진 규정대로만 할 뿐”이라고 딱 막힌 답만 되풀이 했다.

다행히 작년에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일부 개선되긴 했으나 개업의들이 심평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여전하다. 환자가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보여주며 “이거 좋은 약이예요?”라고 물으면 대개 약국에서는 처방약이 상대적으로 비싼 외국 오리지널약이면 “예, 좋은 약이네요.”라고 말하고 국산 카피약이면 “약이 좀 안 좋네요.”라고 말한다. 약사들의 그 말 한마디에 싼 약을 처방한 원장은 실력도 없고 심지어 부도덕한 의사로 비춰지고 마는 게 현실이다.

의사가 의료의 주체로서 자율성을 갖고 오직 환자를 위해 마음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운영방향이 하루 속히 인본주의(人本主義)로 바뀌어졌으면 한다.

bbq 프리미엄 카페 www.kang-chon.co.kr 방문하시어 이용후기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주 1명 선정! 황금올리브 치킨 플래터 증정!

치킨 요리를 테마로 한 유럽식 패밀리 레스토랑 -

bbq PREMIUM CAFE
Great Taste, Eat Fresh

웃웃 강준웨이더타운

가업 2대 대표 백창봉 (41회)

테이크 아웃 고객께는 10%할인

이마 신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배달가능

TEL: 051-293-4500 / 201-0777

용마 에세이

대리시험의 추억

구 문 평

(13회, 해몽가)



1960년 대학에 갓 입학해 두 번째로 교양 영어시험을 치를 때였다.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교양과목의 A반과 B반의 시험문제가 꼭 같은 수가 많아 시험 시간만 다르면 대리시험이 가능하다고 했다. 귀가 솔깃했다. 서울대 농대 농경제학과에 다녔던 나는 입학과의 천금성 동문(14회, 소설가)과는 기숙사의 룸메이트였다. 우리는 동급생이었으나 경남중고 동문으로 내가 한해 선배였기에 스스럼없는 사이였고 무엇보다 천 동문은 영어실력이 뛰어났다.

“야, 금성아. 영어 대리시험 좀 쳐주라”
“그러지요”

예상했던 대로 천 동문은 선선히 응했고 영어 대리시험은 작전대로 치러졌다.

그 후 나는 대리시험건에 대해 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어담당교수가 나를 급히 찾는다. “아이쿠!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천 동문을 찾았다. 먼저 천 동문의 필체를 훑내 내는 연습을 하고 시험에 출제됐던 영문 해석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귀담아 들었다.

교수님 실을 노크하고 들어갔더니 교수님은 “학생은 먼저 번의 시험 성적은 매우 낮았는데 이번에 천 시험은 최상위의 성적 이네. 어떻게 된 일인가?”라며 내 얼굴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이번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능청스럽게 둘러댔다.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불러주는 대로 한번 받아 적어보게”

교수님은 종이와 연필을 내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단어를 불러주는 받아쓰게 했는데 나는 그때마다 천 동문의 필체를 기억하며 써 내려갔다. 이윽고 내가

쓴 종이를 받아 보신 교수님은 영어시험답안지의 필체와 비교해본 뒤 고개를 가웃 등 하시고는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했다.

“지난번 영어시험에서 영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 중에 아주 표현이 잘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표현이었는지를 말하면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어” 이번에는 매우 단호한 말씀이었다.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꼭 같이 반복해 기억을 해 낼 수가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밀리면 필경 나는 물론이고 천 동문까지 정학을 당할 것이라는 걱정에서 끝까지 어거지를 부릴 참이었다.

“그러면 힌트를 하나 주지. 자네가 해석한 구절 중에 ‘무엇 무엇 춤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말해봐.”

그 순간 나는 천 동문이 영문해석 내용을 설명하면서 “안성맞춤이다”라고 크게 말했던 것이 떠올라 즉각 웃으며 “아, 그건 안성맞춤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교수님도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응, 내가 미안 하네” 하시고는 나가보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마치 지옥에서 벗어 난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수실 문을 열고 나왔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할 뿐이다.

나는 1988년 ‘관리영어 용어집’이라는 알곡은 책을 한권 출판했다. 그 책을 본 모 선배가 대뜸 “옛날 학교 다닐 때 영어 대리 시험 치고 팔릴 뻔 했던 사람이 영어책을 냈네?”라고 말해 함께 소리 내 웃었던 적이 있다.

나이 탓인지 요즘 자리에 누우면 이런저런 지난 시절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보고 싶은 얼굴들도 많다. 천금성 동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만나보고 싶어진다.

論 評

‘성찰의 집’ 앞에서

지난 4월 30일 개교기념일을 맞춰서 모교 교정에 ‘성찰의 집’이 준공됐다. 알다시피 ‘성찰의 집’은 6.25전쟁 참전동문들과 전몰동문들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다.

전쟁 발발한 지 벌써 6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진작 모교 교정에 이런 기념물이 세워졌어야 했다. 그러나 늦기는 했으나 우리 동문들이 마음을 모아 이 뜻 깊은 기념물을 건립했다는 것이 여간 다행이 아니다. 이제 비로소 동문형제로서, 그리고 후배로서 할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된다.

현재까지 6.25전쟁 때 참전한 우리 동문은 2백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현재 32명이 전몰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전 동문선배들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책가방 대신 총을 들고 용감하게 전선으로 달려갔고 그들 중 일부는 전선에서 산화, 끝내 구덕산 자락의 모교로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 모교는 개교 이래 수많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들을 길러 냈다. 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길러 낸 학교가 바로 우리의 모교 경남고다. 그러나 수많은 동문들이 조국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참전했으며 그 중 적지 않은 숫자의 우리 동문이 전몰했다는 사실은 대통령 등 3부 수장을 배출한 것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 동문들과 후배 재학생들은 모교 교정 한쪽에 녹슨 철판으로 낮은 담을 치고 그 가운데에 바위 하나 덩그러니 놓아 둔 이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 경건하게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 그 곳에 서서 6.25 참전동문들과 전몰동문들이 보여준 뜨거운 애국심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조국과 우리 삶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성찰(省察)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진 몫이며, 모교 교정에 ‘성찰의 집’을 세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창간 45주년 맞은 동창회보

본보가 오는 6월로 창간 45주년을 맞는다. ‘경남중고동창회보’라는 제호를 달고 창간호가 나온 것이 1968년 6월 1일이었다. 그로부터 4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동창회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문들의 ‘눈과 귀’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물론 그동안 때로는 제 때에 발행되지 못하거나 내용도 부실했던 기간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독자인 동문 여러분의 절대적인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 동창회보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수준의 지면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회보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구독료만으로 힘들게 매 호를 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편집실 인력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요원한 실정이다. 본부동창회 회장단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편집자에게

회보에 자부심 느껴... 필자들과 편집자에게 감사

동창회보를 받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무엇보다 읽을거리가 많고, 하나같이 유익한 내용들이다. 동창회보를 읽는 동안 가끔 이제는 사라져 버린 그 시절, 원형교사 교실 안의 까까머리 소년이었다면 그 때를 회상하게 되는 것도 고마운 일이다.

동창회보를 읽으면서 나는 우선 각각의 삶 속에서 견져 올린 농축된 이야기와 공유할 가치를 지닌 귀한 기억들을 써내는 필자들에게 찬사를 보내게 된다. 때 꼭지마다 서툰 글이 없다. 또한 신선한 기획과 꼼꼼한 솜씨로 매번 훌륭한 지면을 만들어내는 편집자에게도 감사하게 된다.

단언하건데, 우리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이 땅의 수많은 동창회보들 중에서, 그리고 사족 붙일 것도 없이, 수준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래서 동창회보를 받아볼 때마다 경남고를 다녔고 그 동문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동문 제위들은 이 난을 통해 필자들과 편집자를 계속 격려해주었으면 한다.

김해룡 (23회, 한일장신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편집실 메모

▶ ‘암 킬러 바이러스’를 이용한 획기적인 암 치료법을 개발, 국내외 언론에 크게 소개된 황태호 부산대교수가 우리 동문이라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라는 점이다. 그는 치과개업을 하는 대신 연구실에서 20년간 암 치료법 연구에 매달린 끝에 마침내 이런 큰 성과를 냈다고 한다. 언젠가는 노벨의학상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랑스러운 용마’가 아닐 수 없다. 큰 박수를 보낸다.

▶ 이번 호부터 연재하는 <승효상 동문의 한국건축 산책>은 우리 동문들에게 건축을 보는 새로운 안목을 심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에 바빠 도저히 글 쓸 시간이 없다는 그를 힘들게 설득했다. 승 동문과 함께 떠나는 건축기행을 즐겼으면 한다.

▶ 그동안 연재해 온 김병권 동문(15회)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 아름다운 여인의 추억>이 이번 호로 끝난다. 미국에서 살며 장기 연재를 해준 박 동문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다음 호부터는 해양소설가로 유명한 천금성 동문(14회)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바다로 간 농부>가 새로 연재될 예정이다. 흥미진진한 뱀사람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I SQUARE
아이스퀘어

몰링이란? 단순한 쇼핑뿐 아니라 여가 및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집객효과를 극대화한 매머드급 쇼핑센터입니다.

(주)고려개발 대표 박명진(33회)



경남 최초! 상가투자의 메가트렌드 완료!
스트리트형 상가가 뜬다!
“이것이 진정한 몰링이다”



경전철 부원역과 아이스퀘어 2층이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 쇼핑몰

축구장 크기의 야외광장을 누리는 유렵형 테라스 스트리트 조성

유명 Tenants 입점확정	LOTTE Mart	UNI QLO	NH농협	Angel in us Coffee	대형뷔페	대형 휘트니스 사우나&수영장	프리미엄 명품관
	롯데시네마	TOPTEN 10	ABC MART	Nike	클리닉센터	특급호텔	오피스 금융센터

아이스퀘어 특급호텔 직접연결	롯데마트 직접연결	부원역 초역세권 직접연결	915세대 푸르지오 단지앞상가	매머드급 스트리트형 상가	7,715㎡ 축구장 규모 중앙광장
-----------------	-----------	---------------	------------------	---------------	--------------------

분양 문의 055)329-8000 / 055)338-1000

부원역세권지구 복합상가 아이스퀘어 분양 광고

1.건축개요

구 분	A-2블럭	A-3블럭
건축위치	경남 김해시 부원동 부원역세권지구	
대지면적	9,788㎡ (2,961평)	4,542.3㎡(1,374평)
연 면 적	41,241.43㎡ (12,475평)	21,848.878㎡(6,609평)
건축용도	판매 / 근린생활시설 / 문화집회시설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10층	지하2층~지상5층
분양허가	김해시 2012-건축과-분양신고-4	김해시 2012-건축과-분양신고-2

2.분양신청금 입금계좌
 *신청금: 100만원 (이계에서 접수 신청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입금계좌: 경남은행(563-35-0015190)
 *예금주: 고려개발(주)

3.분양계약시 구비서류
 분양신청서,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